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bostonkoreanrealestate.com
Diane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ISSN 1554-6942



안병학 35대 한인회장



유한선 36, 37대 한인회장



한선우 38대 현 한인회장



39대 한인회장



'사상 첫 순' 손연재
"힘들었지만 목표 있어 버텼다"

후보 없는 한인회장 선거, 한인사회 잠잠

8월 말부터 등록 공고 시작
10월 말까지 마감 한달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후보 없는 한인회장 선거가 되풀이 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제 39대 뉴잉글랜드 보스톤 한인회 회장 선거일이 11월 17일로 성큼 다가왔지만 올해도 후보로 선뜻 자원해 나서는 사람이 없다.

등록마감은 오는 31일까지로 아직 한 달 가량의 입후보 기간이 남아있긴 하다. 그러나 선거관리 위원장 김영근 한인회 고문단

회장은 지난 8월 27일에 입후보 등록을 공지한 이후 아직까지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인회장 후보 가뭄 현상이 매년 발생하는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자격이 되는 마땅한 후보감이 있어도 당사자들이 회장직에 대한 막대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 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표했다.

경기침체에 맞물려 더욱 어려워진 한인회 운영 현실에 부담감을 느낀다거나 공탁금이 나 한인회 정회원 100명 이상의 추천서, 정치적 성향을 뺀 수밖에 없는 선거 과정 때문에 더욱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내비쳤다.

등록 기간이 끝날 때까지 후보가 없을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되고 이사회가 소집된다. 이사회에서 추천제로 회장을 추대하는데 당사자가 수락하면 승인과정을 거친 후 총회에서 의결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회장이 될 경우 별도의 공탁금이나 회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제 38대 한인회장을 맡고 있는 한선우 회장도 추천을 통해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실제로 한인회 회장 투표가 실시된 것은 2007년 35대 안병학 전 회장 때가 마지막이다. 35대 한인회 회장 선거를 제외한 34대와

▶▶2면으로 계속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1불의 행복! 대박이벤트!!

지금, IACE 를 통하여 미주지역에서 한국으로 가시는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시면, 체류기간 동안,

인천 ⇄ 도쿄 나리타 항공권
+ 동경 2박3일 호텔숙박권

이 믿을수없는 가격,
\$1에 모십니다!

Japan. Endless Discovery.
www.japantravelinfo.com

IACE TRAVEL Korean Line
CONNECT TO THE WORLD
24H ONLINE BOOKING
WWW.IACE-KOREA.COM

1-866-619-4223
info@iace-korea.com
3655 Torrance Blvd, Suite 100,
Torrance, CA 90503

MORTGAGE MASTER

#1 Lender in Massachusetts!
EXCELLENT RATES
LOW CLOSING COSTS
ADVICE YOU CAN TRUST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O859995

Call me today for a free pre-approval!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금주의 매물

Rental Listings

- 52 River St, Newton, 3 beds, 1.5 baths, 2 cars garage, \$2,900
- 701 Hammond St #1 Brookline, 3 beds, 1 bath, 1 parking, gas and electric 포함, \$2,800
- 116 Burkhal St #0 Weymouth, 2 beds, 1 bath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O859995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Mortgage Master, Inc. NMLS #4251/MA
Lender/Broker MC4251

보스톤 한인회장 선거 11월

▶▶1면에 이어서

36대, 37대, 38대 회장 선거 시에는 입후보자가 없는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사실 올해도 후보 등록은 많이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추천제를 통한 회장 선출방식은 역량이 보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권유할 수 있어 당사자들도 부담감을 덜 느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장명술 보스톤코리아 대표는 “선거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추천을 기다려 비교적 손쉽게 한인회 장직을 맡으려는 눈치보기 작전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출마를 원하는 경우 솔직하게 의사를 표시하고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한인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다시 등 떠밀려 한인회장이 되는 경우 한인들의 한인회 참여도 누가 등을 떠밀지 않으면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선우 회장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한인사회를 바라보며 무엇보다 한인들의 인식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선우 회장은 “한인사회가 구성

될 때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한인회다. 특히 한인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어느 커뮤니티의 대표가 되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리더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한인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기 회장 후보에 대해서 그는 “보스톤의 2만5천의 한인사회는 학생과 전문직 종사자들, 1~2세대 교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좋은 인적 자원이 풍성하다. 이들 중에 한인사회를 다듬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회장 연임에 대해 한선우 회장은 “연임은 없을 것”이라며 웃어 넘겼다. 이어 “지금 한인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뛰어난 회장 한 명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사회구성원 전체가 기존의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참여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올해 선거 관리 위원회는 김영권 위원장과 안병학, 이승기, 윤미자, 권복태, 성기주, 한문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dyoo9146@bostonkorea.com



총점 71,699점으로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

▶▶1면에 이어서

(인천=뉴스1) 양은하 기자 =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버텼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손연재(20·연세대)가 시상식 직후 열린 공식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서 훈련하던 때의 심정이 어떠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손연재는 2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리듬체조 개인종합 결승에서 곤봉(18.100점)·리본(18.083점)·후프(18.216점)·볼(17.300점) 4개 종목 합계 71.699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이에 손연재는 "인천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며 "응원해주고 지켜봐줘서 감사하다는 말

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손연재가 획득한 금메달은 한국 역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다. 손연재가 아시아 정상에 서기까지는 피나는 연습이 있었다.

손연재는 국내 대회에서 각종 우승을 휩쓸었지만 국제 대회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했다.

세계 대회의 높은 벽을 실감한 손연재는 2010년 시즌 이후부터 리듬체조의 강국 러시아에 동지를 틀고 전지훈련을 받고 있다. 하루 8시간 이상의 고강도 훈련을 소화하며 '연습벌레'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연습을 거듭했다.

부모와 떨어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손연재는 러시아에서 얻은 것이 많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에서 쿠드랴체바나

마문 같은 세계적 선수들과 거의 매일 모의 시합을 한다"며 "어떻게 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경기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다"고 어른스럽게 말을 이었다.

손연재는 각종 세계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일부 악플러들 때문에 마음고생도 심했다. 이에 손연재는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악플을)보게 되면 속상하고 힘 빠지는 면이 있다"면서 "그래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제 몫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깨끗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당차게 대답했다.

letit25@news1.kr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펴고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매직 스트레이튼	Magic Straightening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Threading	Threading
디지털 펴고 & 셋팅 펴고	Digital Perm & Setting Perm
아이론 펴고	Iron Perm
헤어 칼라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왁싱	Waxing
얼굴 마사지	Facials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종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4 정기 교사연수회에 참석한 70여명의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학교 교사들

정기 교사연수회 성황리에 마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회장 한순용, 이사장 박신영)에서 주최한 제 21차 교사 연수회가 지난 9월 27일 뉴튼 소재의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교사연수회는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메인, 버몬트 5개 주의 15개 학교에서 70여명의 교사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개회식에서 한순용 협의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 교사들의 손에 달려있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교사들이 좋은 것들을 얻어 가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특별히 박신영 이사장은 이날 함께 참석한 한선우 보스톤 한인회장과 엄성준 총

영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국학교 교사 전문성 향상 - 정체성 및 효과적인 학습 계획과 교실활동’이라는 주제로 전체 강연을 펼친 조세핀 김명화 교수(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는 한인 2세 자녀들과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며 이에 따른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해 주었다. 또한 한인 2,3세를 이해해야 하는 부모들의 역할도 제시했다.

이어 문혜원 교사(로드아일랜드 한인학교), 강주연 교수(미국방대학 외국어 대학 부교수), 황우성 박사(하버드 의학대학원)가 진행한 분반강의가 진행되었다. 이어진 저녁식사에는 한순용 회장이 교사연수회 수료증을 학교 별로 전

달했다.

이날 참석한 교사들은 효과적인 한국어 수업방식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성을 연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며 해마다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는 협의회에게 감사를 전했다.



전체강연을 맡은 조세핀 김(김명화) 교수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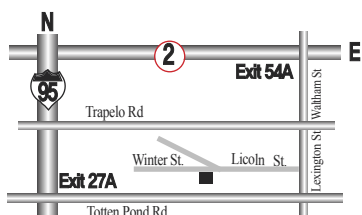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tember 6, 2014

Class	Time	
PSAT / SAT I Prep (Grade 11)	9:00 AM – 11:00 AM	Saturday
PSAT / SAT I Prep (Grade 10)	11:30 AM – 1:00 PM	Saturday
READING / MATH (Grade 9)	1:30 PM – 3:00 PM	Saturday
SAT I Prep (Grade 12)	4:00 PM – 6:00 PM	Saturday
Individual Tutoring	3: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보스톤 총영사관 개천절 기념 리셉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주 보스톤 총영사관(총영사 엄성준)이 주최한 개천절 기념 리셉션이 지난 1일 수요일 보스톤 소재 알گون 클럽(Algonquin Club)에서 열렸다.

이날 리셉션에는 총영사 내외를 비롯해 매사추세츠 주 정부 인사, 학계인사, 참전용사 대표, 한인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엄성준 총영사는 세계 속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며 정치·경제적뿐 아닌 사회·문화적 한미관계를 다지

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재향군인장관 콜맨 니(Coleman Nee)가 ‘잊혀진 한국전쟁’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다지는 의미에서 엄성준 총영사에게 기념토론을 전달했다.

특히 곱게 한복을 차려 입은 김도연 가야금 주자(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 석사과정)의 연주는 외국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dyoo9146@bostonkorea.com



환영사를 전하는 엄성준 총영사



김도연 가야금 주자의 연주를 듣는 초청객들



리셉션에 참석한 초청객을 환영하는 엄성준 총영사 내외와 박윤주 부총영사 내외

김은한 본지 칼럼니스트 '세계한인의 날' 정부포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제 8회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하여 보스톤코리아 김은한 칼럼니스트가 외교부에서 주최하는 유공 재외동포 및 국내인사 대상 정부포상을 받는다.



그는 보스톤 초기 한인사회에서 의료 보험이 없는 한인들을 위해 처방전을 내주는 등 의료서비스 혜택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이사장(1979~1996)을 역임하며 한인들의 교육에 크게 이바지하여 이 포상을 받게 된다.

김은한 칼럼니스트는 “훈자 받는 상이 아니다. 같이 수고하고 힘썼던 동료들이 있었기에 성취할 수 있는 일 이었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 뿐”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김은한 칼럼니스트는 보스톤코리아에서 5년째 한국과 중국, 일본에 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칼럼을 쓰고 있으며 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이사장, 전 시민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Topfield Fair 탑스필드 페어



놓칠 수 없는 뉴잉글랜드 농축산물 축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뉴잉글랜드의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농축산물 축제 중 하나인 탑스필드 페어(Topsfield Fair)가 지난 3일부터 시작되었다. 13일 월요일까지 열리는 이 축제에는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하고 다양한 퍼포먼스와 전시회, 놀이기구 및 농경체험이 제공된다.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나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으므로 단풍이 아름다운 10월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일 제공되는 이벤트나 퍼포먼스가 조금씩 다르다. 뉴잉글랜드 최대의 자이언트 호박 대회, 알파카 등의 농장 동물 구경, 마술 쇼, 모델기차 전시회, 뮤지컬 퍼레이드, 몬스터 트럭 쇼 등 다양하고 진기한 이벤트가 매일 다르게 열리므로 반드시 탑스필드 페어 홈페이지

『뉴잉글랜드 최대 자이언트 호박 대회, 알파카 등의 농장 동물 구경, 마술 쇼, 모델기차 전시회, 뮤지컬 퍼레이드, 몬스터 트럭 쇼 등』

(<http://www.topsfieldfair.org/dailyschedule.php>)에서 스케줄을 확인하고 가는 것을 권장한다

입장료는 평일 \$11, 주말(휴일 및 10일 포함) \$15이며 어른을 동반한 8세 미만 어린이는 무료 입장이다. 3일 내내 즐길 수 있는 티켓은 \$25이다. 6일 월요일에는 60세 이상 \$8이며 7일 화요일에는 미군과 가족은 무료입장이다.

애완동물은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
탑스필드 페어 최대로 즐기기 위한 팁

1. 음식을 싸가도 좋다. 놀이공원에서 항상 아쉬운 것은 음식이 반입되지 않아 비싸고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는 음식을 사먹게 되는 것. 하지만 탑스필드 페어는 도시락 반입을 허락한다. 김밥이나 샌드위치 등 직접 만든 도시락을 가져가 더욱 단란한 시간을 보내면 돈도 절약하며 더욱 즐길 수 있을 것이다.

2. 탑스필드 페어 바로 앞까지 차를 몰고 갈 생각을 하면 고속도로에서 상당 시간을 보내야 할 수 있다.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하면 무료셔틀이 주기적으로 운행하니 인근에 위치한 노스쇼어 커뮤니티칼리지(North Shore Community College)나 매스코노멧 리저널 하이스쿨

(Masconomet Regional High School)에 주차하면 된다. 두 곳의 주차비는 \$5이다.

노스쇼어 커뮤니티 칼리지는 루트 95 exit 50로, 매스코노멧 리저널 하이스쿨은 exit 51로 나가면 되는데 특히 주말에는 exit 50으로 나가면 도로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네비게이션으로 탑스필드를 검색해서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 네비게이션 말만 듣고 exit 50으로 빠지면 즐거운 축제를 보낼 수 없을지도 모르니 Exit 51을 사용해 도로에서의 시간을 절약하자.

207 Boston Street, Topsfield, MA 01983
978-887-5000
www.topsfieldfair.org

dyoo9146@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년 보스톤 잡지 선정 한식1위인 가주순두부
이제 얼스톤과 캠브리지 두곳에서 모시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입니다.

얼스톤 주소: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캠브리지 주소: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6868



단체예약과 문의 가능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가을산행 및 문화행사 공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풍성한 가을을 맞아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에서 가을산행 및 다양한 문화행사를 가진다.

보스톤화음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

오는 5일 일요일 로드아일랜드 브라운 대학교에서 보스톤화음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회를 연다. 이 행사는 전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을 역임한 이길자, 정정욱 내외의 주관으로 모든 수익금은 한인회 장학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가을산행

13일 월요일 콜럼버스테이에 떠나는 가을산행에는 매사추세츠 주와 뉴햄프셔 주 경계에 있는 워터틱 산(Mount Watatic)과 캐시더럴 오브더 파인스(Cathedral of the Pines)를 경유할 예정이다. 세 번의 답사과정을 거치며 산행을 준비한 이동문 회장은 “솔잎 향 가득한 가득한 피톤치드로 몸과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풍요로운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스트미트웨스트(East Meet West) 공연

26일 일요일에는 전날 열리는 주정

부 청사의 태극기 게양식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의 국악과 재즈가 만나는 버클리 음대의 이스트미트웨스트(East meet West) 공연이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한인들과 한인회, 헤리티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관련 정보는 www.rikorean.org를 통해 알 수 있고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401-451-8518 또는 info@rikorean.org으로 연락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햄프셔한인회 회관건립기금 모금 만찬 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 한인회(회장 박선우)가 오는 25일 토요일 오후 7시 뉴햄프셔 감리교회에서 회관건립 기금조성 만찬 및 경과보고 행사를 연다.

뉴햄프셔 한인회에서는 지난 8년 동안 모금에 힘써왔으며 회관건립기금 모금 만찬은 2012년부터 시작한 행사로써 올해가 세 번째다.

뉴햄프셔 한인회관건립위원회는 연방국세청으로부터 인가된 비영리법인 체로 기부금은 세금공제가 된다. 박선우 회장은 “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만 끝날 수도 있지만, 다같이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지역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입장권 구입 등 자세한 기타문의는

박선우 뉴햄프셔한인회 회장(603-767-1356)에게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4년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뉴햄프셔 감리교회(8 Pleasant Street, Salem, NH 03079)

bostonkorean@hotmail.com

뉴잉글랜드 간호사협회 공지 하버드 의학세미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오는 11일 토요일 신장(콩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뉴잉글랜드 간호사협회 관계자는 “신장은 피를 걸러내는 중요한 기관으로 신장병은 뇌졸중, 심장병, 고혈압, 빈혈, 신경 손상 등의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많은 사람이 참석

하여 유익한 정보를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간호사협회(<http://www.korean-nurses.org/>)는 매사추세츠 주 정부에 2007년부터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인 간호사들의 비영리단체다.

행사일정

일시: 2014년 10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30분

장소: 샤피로 브레이크 룸(Shapiro Break Room, Brigham & Women's Hospital/ Carl J. and Ruth Shapiro Cardiovascular Center) 70 Francis Street, Boston, MA 02115

연락처: 617-264-3069/
contact@kdsap.org

bostonkorean@hotmail.com

뉴잉글랜드 고려대 교우회 뜻 깊은 자리 마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고려대학교 교우회(회장 이태호, 생물 87)의 2014-2015년 첫 모임이 지난 27일 토요일 한선우 교우(원예 78) 자택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교우회에는 68학년부터 06학번까지 총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새로운 교우를 환영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제 16대 이태호 교우회장은 모임에 앞서 참석한 교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난 1년간의 교우회 행사를 소개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참석이 필요하다”며 회원들의 참여의식을 강조했다.

이어 대외 협력을 맡은 한문수(경제 83) 전 13대 교우회장은 지난해 교우회가 지역사회에 후원한 소식에 대해 알리며 특별히 본교에서 보내온 고대 깃발을 소개하

며 본교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교우회에 처음 참석한 김철(경영 68) 교우는 “따뜻하게 맞아주어 감사하다”며 “항상 발전하는 고대 교우회가 자랑스럽다”는 인사말을 했다. 부부와 함께 참석한 박경원(재료 03) 교우는 “지난 1년 동안 교우회에서 고대인들의 변함없는 끈끈한 정을 느꼈다. 앞으로 후배들에게 베풀 수 있는 선배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은 정철화(농화학 83) 교우의 선창으로 교호와 교가를 제창하며 마무리했다.

고대 교우회의 다음 모임은 신년회로 1월에 가질 예정이다. 고대 교우회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이태호 617-780-2999, tleee0813@hotmail.com/김재철 617-455-7649)

bostonkorean@hotmail.com



40여명이 모인 2014-2015년 첫 고대 교우회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기사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처: bostonkorean@hotmail.com, 617-254-4654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만립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바리톤 김동원, 소프라노 나유선 함께 서는 첫 무대 설렌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오는 5일 일요일 성악가 김동원과 나유선이 함께 서는 첫 무대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등을 선보인다.

이번 합동 무대에 대해 성악가 나유선은 “노래마다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고 늘 정열적인 김동원 선생님과 함께 노래할 수 있어 감사하다” 며 “관객과 사랑을 나누고 교감하는 한 뜻을 갖고 무대에 서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되는 연주회가 될 것” 이라고 전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한국어, 영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의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감상할 수 있다. 생소한 언어로 음악을 감상할 청중들에게 성악가 김동원은 “언어는 다 다르지만 연주자가 그 곡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표현에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대입한다면 해설과 자막 없이도 음악만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성악가 나유선은 ‘그대 있음에’와 ‘그리운 금강산’ 등의 한국 가곡을 선보이는데 한인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뜻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며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미를 알릴 수 있어 특별히 선했다고 한다.



바리톤의 김동원과 소프라노의 나유선, 오는 5일 첫 합동무대를 연다

보스톤 소재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NEC)에서 각각 아티스트 디플로마 오페라 과정과 성악, 오페라 석사과정을 마친 성악가 김동원과 나유선은 보스톤 지역에 특별한 애착이 있다.

성악가 나유선에게 보스톤은 “첫 유학지자 제2의 고향 같은 곳” 이라며 “뜻 깊은 곳에서 훌륭한 연주자들과 함께 공연할 수 있어 행복하다” 고 전했다. 성악가 김동원은 “보스톤 지역에는 열정을 가지고 꿈을 위해 준비하는 성악도가 많이 있다” 며 “그들과 함께 공연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하며 준비해야겠다” 며 보스톤의 음악인들을 격려했다.

성악가 김동원과 나유선은 현재 미

국과 한국에서 다양하고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는 11월 보스톤에서 열릴 자선음악회에서 성악가 나유선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성악가 김동원은 연말을 한국에서 보내며 공연활동을 할 예정이며 내년 2월에는 보스톤에서 열리는 가곡신곡발표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는 오는 5일 일요일 브루클라인 소재 세인트 폴 교회(St. Paul's Episcopal Church)에서 열린다. 티켓은 일반인 \$10, 어린이와 청소년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며 www.kcsboston.org에서 사전에 구매하거나 당일 장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화음보스톤 챔버 오케스트라, 오는 5일 로드아일랜드 공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화음보스톤 챔버 오케스트라가 10월 5일 일요일 오후 5시에 로드아일랜드 소재 브라운대학 그랜오프센터(Granoff Center)에서 첫 장학기금 모금 음악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는 젊은 한인 음악가들

을 격려하고 후원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아울러 브라운대학 25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티켓 및 후원금 관련 문의는 508-336-5580으로 연락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4년 10월 5일 일요일 오후 5시

장소: 브라운대학 그랜오프센터(Granoff Center), 154 Angel Street, Providence, RI 02912

bostonkorean@hotmail.com

화음보스톤 챔버 오케스트라 가을연주회 성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화음보스톤 챔버 오케스트라(음악감독 박진욱, 대표 장수인)는 지난 9월 27일 퍼스트처치 인 캠브리지(First Church in Cambridge)에서 가을을 알리는 2014-2015년 시즌 첫 음악회를 선보였다.

보스톤 지역의 영 한인음악가들의 아름다운 연주는 관객들에게 친숙한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Divertimento)로 시작해 차이코프스키, 야나체크(Janacek), 쉐베르크의 레파토리로 이어졌다. 앙코르 요청으로 비틀즈의 예스터데이(Yesterday)를 연주하자 친숙하면서도 새로운 버전의 멜로디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장수인 대표는 “박진욱 지휘자의 열정과 단원들의 출중한 실력이 돋보인 연주회였다” 고 전하며 “특히 연주장소가 허버드 스퀘어였고 학생은 무료입장이었던 만큼 많은 학생 관객들이 참석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 고 전했다.

이날 관객으로 연주회에 참석한 미국인 학생 크리스틴(Kristen, 하버드대)은 “챔버 오케스트라 음악의 아름다움이 생생하게 전달된 멋지고 훌륭한 연주였다” 고 감동을 전했다.

화음보스톤 챔버 오케스트라는 오는 5일 일요일 로드아일랜드 소재 브라운 대학교 그레노프 센터(Granoff Center)에서 음악회를 연다. 이 행사는 브라운 대학교 250주년 기념음악회(브라운 KGSA 주최)로 열리며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 학기금모금도 함께 이뤄진다. 이는 한인회장을 역임한 정정욱(13대), 이길자(25대) 박사 내외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다.

음악회 티켓 문의는 sooihnee@comcast.net으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지난 9월 27일 화음보스톤 챔버 오케스트라의 가을연주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법륜스님 즉문즉설 하버드 강연 개인적 삶에 관한 질문 줄이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깊은 통찰력과 유쾌하면서도 심오한 멘토링으로 많은 청중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주는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강연이 지난 9월 24일 하버드 대학교 사이언스 홀에서 열렸다.

이날 학생을 비롯한 한인들 200여명이 강연에 참석하여 고민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이는 예년보다 적은 인원으로 강연장을 꽉 채웠던 작년 강연 때와는 사뭇 달랐다.

강연에 참석한 청중의 대부분은 학생들이었고 주로 학업이나 꿈,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나눴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먼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좋은 사람’의 정의는 무엇인가?” “강연을 듣고 삶에 어디까지 적용을 해야 하는가? 수행도 필요

한가?”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등의 질문들을 했다. 주부나 직장인들은 종교, 가정과 직장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2시간 50분동안 계속된 즉문즉설 강연에는 총 18명이 질문을 했다. 법륜스님의 유쾌하면서도 진지한 대답에 청중들은 웃음과 큰 박수를 보냈다.

법륜스님은 다음과 같은 멘트로 하버드 즉문즉설 강연을 마쳤다. “행복은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기다. 학생은 공부 재미있어야 하듯 항상 지금을 가장 좋은 시절로 바라보고 살아야 행복하다.”

강연 후에는 법륜스님의 북 사인회가 있었고 10명의 자원봉사자들과의



단체사진 촬영이 있었다.

법륜스님의 세계 100회 릴레이 강연은 유럽과 캐나다,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아시아 지역에서 115회에 걸쳐 열린다. 보스톤은 북미 첫 강연지였으며 현재 법륜스님은 미주 전역을 돌며 강연을 계속하고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학생과 지역 한인 200여명이 참석한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하버드 강의

암 극복한 아시안 여성들 자선패션쇼 연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오는 11일 토요일 오후 7시 아시안우먼포헬스 (Asian Women for Health)에서 주최하는 자선패션쇼 (Celebr Asians: A Benefit Fashion Show)가 서머빌에서 열린다.

암을 이겨낸 아시안 여성들이 모델로 서는 이 패션쇼는 동양계 디자이너들의 작품으로 진행된다. 특별히 암을 이긴 세 명의 한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있다.

입장료는 \$80이며 티켓은 다음 링크에서 구매할 수 있다. (<http://www.eventbrite.com/e/2014-celebrasiens-benefit-fashion-show-tickets-12592443337?aff=eac2>)

행사일정



암 극복한 아시아 여성들 위한 자선패션쇼, 오는 11일 서머빌에서 열린다

일시: 2014년 10월 11일 토요일 오후 7시~10시

장소: 댄스 유니언 (Dance Union, 16 Bow Street, Somerville, MA 02143)

bostonkorean@hotmail.com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정보리포터 모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위해정보과에서 오는 26일까지 해외정보리포터를 모집한다.

식품의약품의 사전안전관리를 위해 해외에서 거주하는 유학생, 교민, 관련 기업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해외정보리포터”는 세계 식품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는다.

17개국 총 22명을 뽑으며 미국에

서는 1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식품의약품 등 관련 전공자로서 식품의약품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여야 한다. 아울러 현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를 모집한다. 주요업무 내용은 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정보 수집/보고 등이다.

응시원서 접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Cell 617.694.0985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Birchtree Properties, R.E.

이정선 부동산

*부동산 비즈니스 세일

Cell 781.883.5984
Fax 781.874.9587
Work 781.874.2087
Email Chunglee7@gmail.com

33 third street medford, Ma 02155
www.btpusa.net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2020년 완공 예정인 올스톤 웨스트스테이션

올스톤에 커뮤니티레일 역 들어선다

2020년 완공 예정 웨스트 스테이션, 다운타운과 바로 연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정부는 30일 올스톤 소재 기차길 야드에 총 2천5백만불을 들여 커뮤니티레일 기차역을 건설키로 했다. 올스톤 주민들은 커뮤니티 레일을 통해 베이, 사우스 스테이션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매스 턴파이크(90번 도로) 올스톤-브라이튼 톨부스 인근에 조성되는 거대한 크기의 땅에 건설될 가칭 웨스트 스테이션(West Station)은 이 지역의 교통구도를 현저하게 바꾸게 될 전망이다. 올스톤 주민들은 이 커뮤니티레일 역이 이 지역의 가치를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2020년에 완공될 웨스트 스테이션은 현재의 우스터/프렐링햄 커뮤니티 레일의 새로운 정차역이 된다. 이

커뮤니티 레일은 출퇴근 시간에는 비교적 자주 운행되며 기타 시간에는 간헐적으로 운행된다.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새로운 기차역은 지역 주민과 인접한 새로운 공간과 땅을 최대한 활용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지사는 이 기차역이 디젤로 움직이는 트롤리를 통해 케임브리지와 노스 스테이션까지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웨스트 스테이션은 오는 2017년부터 착공하는 2억 6천만불 규모의 매스 파이크의 직선화 작업과 연계해 진행하게 된다. 매스파이크의 직선화로 인해 약 50에이커 규모의 땅이 조성되며, 이곳에 자전거길, 산책로, 그리고 주택 그리고 기차역이 건설될 예정이다.

지난 5월 매사추세츠 교통부는 과도한 비용을 이유로 올스톤 웨스트 스테이션 건설을 매스파이크 직선화 건설 안에서 잠정 유보했었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이 자대학 소유 22에이커의 비컨 파크 야드의 일부에 건설될 웨스트 스테이션 건설 비용의 3분의 1 가량을 지원 약속하면서 다시 살아났다.

나머지 3분의 1의 비용은 주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다른 민간 합작 콘소시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협상을 진행 중이다.

웨스트 스테이션의 착공도 매스파이크 직선화 사업과 같은 2017년에 시작해 2020년 최종 완공될 예정이다.

hsb@bostonkorea.com

유매쓰, 대학생 마약 정보원 프로그램 재검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최고의 주립대학인 유매쓰 앰허스트(University of Massachusetts-Amherst)에서 학생을 마약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매쓰 앰허스트 경찰이 정보원으로 고용한 학생이 마약 과다 투여로 사망한 지 1년만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작년 10월에 20살인 유매쓰 앰허스트 대학생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헤로인 과다 투여로 사망했다. 이 학생은 유매쓰 앰허스트 대학 경찰의 정보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학생은 마약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그러나 대학 경찰의 정보원으로 일을 하는 대가로 부모나 친구들에게 마약 복용 및 판매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 있었고 형사 처벌도 받지 않았다.

경찰에서는 마약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제안했으나 이 학생이 거절했다. 그리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마약 과다 투여로 사망했다.

유매쓰 앰허스트는 지난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학생을 마약 정보원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현재는 유매쓰 앰허스트 소속 학생 중에서 마약 정보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유매쓰 앰허스트 외에도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을 마약이나 범죄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매쓰 앰허스트가 성명을 발표한 이후 보스톤 인근에 위치한 보스톤 칼리지(Boston College), 보스톤 대학(Boston University), 노스이스턴 대학, 템스대학 등 4개 대학은 공식 성명을 내고 학생을 마약 정보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hsb@bostonkorea.com



유매쓰에서 마약 정보원으로 활동하던 학생이 마약과다 투여로 사망했다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간	그룹 지도	개인 지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MA주 메디케이드 환급 비용 \$106M 추가로 받아

연방 감사 보고서, 비용 계산 잘못됐다 지적, MA주 정부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미국 연방 정부가 매사추세츠 정부에 메디케이드 비용으로 1억 6백만 달러를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발표된 감사 보고서는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매사추세츠 정부가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연방 보건부에서 진행된 감사 보고서는 매사추세츠가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접수한 메디케이드 비용에 대한 환급 비율이 잘못 계산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방 정부가 보조해야 할 메디케이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지출되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는 통상적으로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반반씩 비용을 부담한다. 주 정부가 우선 메디케이드 비용을 지불하고, 연방 정부가 메디케이드 비용의 50%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 비율을 일시적으로 상승시켰다. 주 정부들을 재정적으로 돕기 위한 단기 조치였다.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연방 정부의



부담 비율이 50%였던 메디케이드 비용은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2월 사이에 58.5%~61.6%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접수된 메디케이드 환급 비율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것이 연방 감사 보고서의 지적이다.

연방 감사관은 매사추세츠 주가 신청한 550만 건 이상의 환급 신청을 검토하였고, 이중 약 240만 건이 잘못 계산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가 메디케이드 환급 비용을 1억 6백만 달러를 초과 지급하였다.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한 예로, 매사추세츠 정부는 2005년에 한 환자에게 1,716달러를 지급한 뒤 연방 정부로부터 메디케이드 환급 비용으로 858달러를 받았다. 2009년에 매사추세츠 정부는 같은 환자에 대한 메디

케이드 지급 비용을 2,400으로 변경하고, 61.6%의 환급 비용을 적용하여 연방 정부로부터 1,478달러를 환급 받았다.

이런 경우 61.6%로 인상된 환급 비율은 2009년에 조정된 금액과 처음 청구 금액 간의 차이인 684달러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감사 보고서의 설명이다. 그러나 2,400달러 전체에 인상된 비율을 적용하여 연방 정부가 약 200달러를 초과 지급한 것이다.

매사추세츠 주 정부 관계자는 연방 정부의 감사 결과를 수긍하지만, 2011년 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는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1억 8백만 달러를 덜 받았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초과 환급 비용이 결과적으로는 상쇄된다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로드 아일랜드 호흡기 바이러스 첫 사망자

10세 여아, 엔테로 바이러스 68 합병증으로 사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로드아일랜드에서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10세 여아가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로드아일랜드 보건부는 1일 여아가 지난주 엔테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다시 합병증으로 포도상구균에 감염되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감염은 매우 드문 사례로 알려졌다.

컴버랜드에 거주했던 이 여자 어린이는 호흡곤란을 일으켜 하스보로 칠드런스 호스피탈로 옮겨졌

으며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미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호흡기 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68은 현재 미국내 워싱턴 DC와 41개주에 퍼져있으며 472명이 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진됐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경미하거나 심각한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호흡곤란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hsb@bostonkorea.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정관장

미주 한인들 **힘** 대한민국 **뿌리**에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일수록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건강이 걱정되는 요즘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면역력입니다

정관장 홍삼이면 믿을 수 있습니다.

115년 정관장의 원칙은 결코 모방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국내산 6년근 고려인삼만을 100%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로 사용하며 최고의 설비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를 받고 만들어집니다. 태생부터 다른 정관장 홍삼은 타 홍삼제품이 모방하지 못하는 품질이 있습니다.

그 어떤 건강식품 보다 안전합니다.

과대광고 제품과 다양한 속설에 주의하세요. **홍삼은 장기섭취가 가능하고 무독한 상약**으로 분류되어 오랫동안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관장 홍삼은 인삼을 증삼하여 부작용을 줄였으며 체질에 관계없이** 드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1일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면 그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MART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올 겨울 전기요금 급증할 듯

발전소 연료인 천연가스 부족으로 인한 37% 상승, 난방 가스 가격은 오히려 1-2% 인하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 겨울 매사추세츠 전기료가 발전소의 전기가격인상으로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스톤글로벌이 26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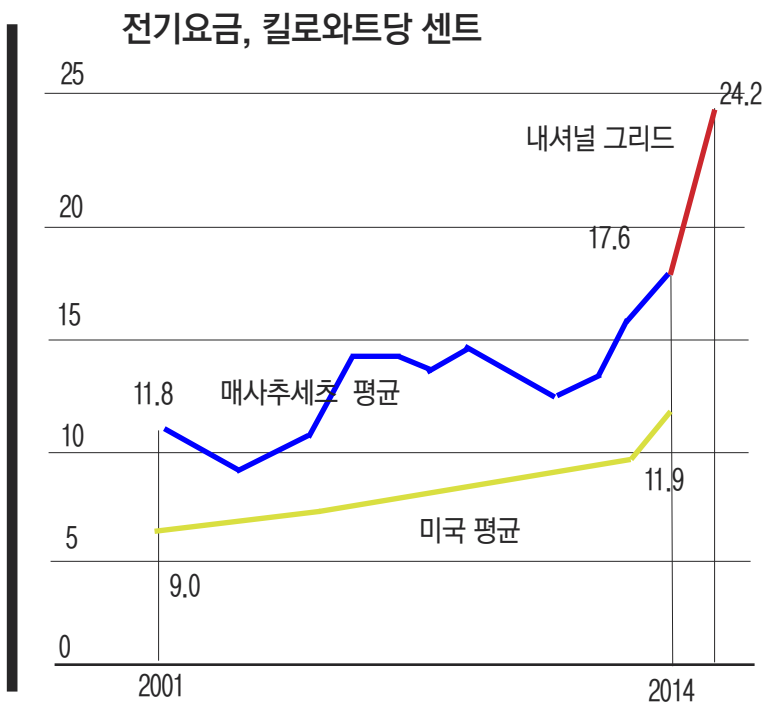
글로벌은 매사추세츠 주 양대 유틸리티 회사 중의 하나인 내셔널 그리드(National Grid)의 발표를 인용해 한가계당 평균 월별 전기료가 \$150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내셔널 그리드 대변인은 오는 11월부터 전기요금이 지난 10년 중 최대인 37% (약 \$33) 인상될 예정이며 이는 발전소의 전기 판매가격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사추세츠 주의 또 다른 대형 유틸리티 회사인 Nstar도 올 겨울 전기요금 급등을 예고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인상액은 결정하지 않았다.

가격 급등은 뉴잉글랜드 지역이 천연가스를 난방과 전기발전 두 가지 모두의 원료로 사용하면서 과도하게 천연가스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파이프 라인은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수송량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소들은 결국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또한 올해 초 석탄을 원료로 하는 셸럽하버파워스테이션 발전소가 문을 닫았고 버몬트의 양키 핵발전소도 폐쇄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올 겨울 전기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뉴잉글랜드 발전소협회 댄 돌란의 설명이다.

내셔널 그리드는 주내 1백 30만 가정과 사업체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올 겨울 전기가격은 킬로와트 당



24.2센트로 매사추세츠 가정이 한달 평균 사용량인 630킬로와트를 쓸 경우 전기요금은 150불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전기요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난방연료비는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내셔널 그리드의 천연가스 가격은 1-3%정도 인하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유틸리티 회사들은 가정용 난방 가스를 아주 장기적으로 낮은 가격대에 고정가격으로 선물로 거래하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공급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발전소들은 단기로 연료를 구입하기 때문에 단기 시장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가격이 변동할 수밖에 없다.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 확장과 발전소 확충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같은 상황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저소득층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저소득 가정의 경우 내셔널그리드나 엔스타에 난방비 할인 요청서를 보내면 요금의 25%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내셔널그리드는 난방비 부담이 큰 경우 요금을 일년 동안 균등하게 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내셔널 그리드의 저소득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평균소득 60%이하 또는 연방빈곤선 200%이하여야 하며, Food Stamps, WIC, Head Start, Mass Health,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Public Housing, School Breakfast Program 등의 프로그램 중 하나에 현재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2014 최고 부자 순위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포브스가 발표한 2014년 미국내 400대 부자순위는 대부분 큰 변동이 없었으며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6명이 400대 부자 순위 명단을 올렸다.



로버트 크레프트

미국내 10위 부자에는 빌 게이츠(802억)와 워렌 버핏(670억)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고, 오라클의 레리 엘리슨(476억)에 이어 코치 형제가 나란히(425억)으로 공동 4위였다.

마이클 저커버그는 337억으로 월마트 월튼가 형제들과 블룸버그에 이어 11위를 차지했다. 구글의 레리 페이지(313억)와 세르게이 브린(308억)으로 뒤를 이었고 아마존 제프베조스가(294억)으로 15에 머물렀다.

36위 에비게일 존슨(52) 밀튼거주 131억 달러

에비게일 존슨은 피델리티 투자회사를 이끌고 있는 에드워드 존슨의 딸이다. 에비게일 존슨은 작년 8월부터 피델리티의 사장을 맡고 있다.

64위 에드워드 존슨(84) 보스턴거주 72억달러

에드워드 존슨은 피델리티의 회장이자 최고 경영자이다. 존슨의 아버지는 65년 전에 이 회사를 설립했다. 피델리티는 현재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뮤추얼 펀드 회사이다.

123위 밥 크레프트(73) 브루클라인 거주 40억 달러

크레프트는 종이와 포장 산업에서 크게 성공하며 부를 쌓기 시

작했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소유주로도 유명한 크레프트는 패트리어츠를 통해서도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 지난해 184위 29억달러에서 40억 달러로 부가 늘었다. 역시 패트리어츠 선수들에게 짜게 군 소득이 있는 듯.

172위 짐 데이비스(71)뉴튼거주 32억 달러

데이비스는 현재 뉴 발란스의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다.

185위 아모스 호스테터(77) 보스턴 거주 31억달러

호스테터는 1963년에 콘티넨탈 케이블비전을 설립했으며, 90년대에 주식을 정리하고 회사를 넘기면서 큰 부를 축적하였다.

390위 필립 레이곤(65) 보스턴 거주 15억 8천만 달러

레이곤은 1978년에 인터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4억 4천 3백만 달러 규모의 회사로 키워냈다. 레이곤은 아내와 함께 레이곤 연구소를 설립하여 MGH, 하버드, MIT 등과 함께 에이즈 백신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주 전체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턴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로 각 지역마다의 장점,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자리에 집과 사업체 매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 969-4989




EXCLUSIVE

\$ 239,000, 3 BEDS, 2.5 BATHS, 1,594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의 타운 하우스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0만점에 10점 일 정도로 학군이 좋습니다. 보스턴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19.5 마일입니다. 더 자세한 집 정보와 동영상은 아래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newstargina/209766588>




BEDFORD 지역 단독주택

\$619,000, 3 BEDS, 2 BATHS, 2,010 SF, 1.3 Acre Lot Size
(3 CEDAR LANE, BEDFORD, MA)
학군 좋은 Bedford 지역 Single House. 넓은 정원, 안쪽에 위치, 조용하고 Private한 곳입니다.

홍콩 시위, 세계 경제 흔들는 '뇌관' 되나

중국에 자본 공급 금융 센터, 홍콩... 중국 흔들까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홍콩 민주화 요구 시위가 전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이는 현재로서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시위가 보다 격화되고 중국이 단호한 대응에 나선다면 이 같은 전망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30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홍콩은 전세계 경제규모(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4%에 불과하다. 시위가 현 상황에서 격화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척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홍콩이 처한 상황을 들여다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우선, 시위가 지속되면 국경절 연휴(10월 1~7일)에 홍콩을 찾는 관광객들은 대폭 감소한다. 홍콩 내 주얼리 등 고가의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매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홍콩 증시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다 큰 위험 요인은 시위의 확산이다. 중국 당국은 신장, 티베트, 마카오, 대만 등으로 시위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시위가 확산되면 그렇지 않아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경제가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최근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7.7%에서 7.3%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목표치 7.5%를 밑도는 수준이다.

또 다른 우려는 중국에 자본을 공급하는 중요한 금융 센터로서의 홍콩의 위상에서 비롯된다. 시위 격화는 중국



내 투자를 위축시켜 중국의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에 파급효과를 미친다.

중국 시위 격화를 막기 위해 홍콩에 군대를 파견하면 다른 국가들이 무역 제재를 부과할 수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 캐피탈 이코노미스트는 "긴장 고조의 조짐이 보인다면 투자자들의 리스크 선호심리를 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홍콩 수반인 령준잉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 29일 중국 군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루머가 시위대 사이에서 나돌자 "시민들이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며 "루머에는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중국 정부는 홍콩의 민주화 시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홍콩 당국의 해산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공산당 독재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위에 대해서는 홍콩 금융계에서도 큰 우려를 표하고 있지

않다. 옥-치프 캐피탈 매니지먼트, TTT 인터내셔널 등 헤지펀드 업체와 사모펀드 블랙스톤 등의 홍콩 사무실은 평상시처럼 영업을 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CNBC는 보도했다.

은행권은 조금 더 영향을 받았다. HSBC와 스탠다드 차타드 등 23개 은행 중에서 총 44개의 지점과 사무실, ATM이 30일 오후 기준으로 일시 폐쇄됐다. 헤지펀드 업체 키와이즈는 투자 리포트에서 "시위로 홍콩 금융시장에서 유통과 관광, 부동산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은 1997년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하에 중국에 반환됐으며 중국 본토에선 누리지 못하는 수준의 자치와 자유를 보장받았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달 홍콩의 행정장관을 자유롭게 선출하게 해달라는 홍콩 시민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lchung@news1.kr

백악관 침입남, 경호원 제압 후 내부 '이스트룸'까지 진입

(다마스쿠스/무르시트피나르 로이터=뉴스1) 정이나 기자= 백악관 담을 넘어 대통령 관저까지 질주하다 체포된 남성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관저 내 이스트룸(East Room)까지 진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는 29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오마르 곤잘레스(42)가 당시 현장의 비밀경호국 요원들을 제압하고 이스트룸 안까지 달려갔다고 전했다.

이스트룸은 백악관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방으로 연회나 무도회, 기자회견 등이 열리는 곳이다.

사우스론 쪽 그린룸을 통해 백악관에 진입한 곤잘레스는 이스트룸에서 비밀경호국 요원에 제압됐다. 소식통은 곤잘레스와 요원들 사이에 몸싸움과 격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익명의 비밀경호국 관계자에 따르면 외부인의 침입을 경고하기 위해 설치된 알람은 당시 백악관 관리실의 요청에 따라 소리가 꺼져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백악관 정문 내부에 배치됐던 경호국 요원이 곤잘레스의 침입 사실을

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백악관 경호국 요원들은 외부 침입자가 들어올 경우 곧장 정문을 잠그도록 훈련을 받고 있다.

앞서 비밀경호국은 노스포티코 정문을 통해 침입한 곤잘레스를 곧장 제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한들의 잇단 침입에 백악관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30일 줄리아 피어슨 비밀경호국 국장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어슨 국장은 하원 정부 감시개혁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보안 절차 개선 방안 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백악관 담을 뛰어넘어 진입한 곤잘레스는 이라크 참전 용사로 당시 약 9cm 길이의 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lchung@news1.kr



교통사고
직장상해
닥터노트
학생보험

물리치료 재활치료 전문병원을 찾으십니까?

전. 다마스쿠스 병원 대표 원장
뉴욕 닥터스 통증 클리닉 대표 원장
노스이턴 대학교 물리치료학 박사
에모리얼 병원 재활의학 과 수석비서
위싱턴 디씨 병중병원 원장
대구대학교 외과 교수
신원대학교 외과 교수
영동대학교 교수 | 희곡강
한양대학병원 재활의학 과

617.731.1001
GOODPT.COM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DOCTOR PHYSICAL THERAPY
닥터스통증병원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 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MED ACUPRESSURE

지압치료(Acupressure Therapy)
햇스톤
속 눈법 연장, 웨이셀

전화 예약 : 617-970-6038, 617-558-8870
시간 : 월요일 ~ 토요일 (10am ~ 8pm)
주소 : 634 Commonwealth ave (#204)
Newton center, MA 02459
website : http://www.medacupressure.com

MS, PC · 태블릿 · 스마트폰 통합형 '윈도우 10' 공개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마이크로소프트(MS)가 컴퓨터(PC) 부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영역에서도 운영 체제(OS)를 장악하기 위해 모든 기기를 통합하는 차세대 OS '윈도우 10'을 공개했다.

MS는 30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행사를 열어 윈도우 10의 '초기 테크니컬 프리뷰' 프로그램을 공개함과 동시에 차세대 윈도우 명칭이 윈도우 10으로 정해진 것과 내년 출시 계획에 있음을 밝혔다.

MS는 윈도우 현 버전인 '윈도우 8'에서 9이 아닌 '윈도우 10'으로 건너 뛰는 것에 대해 새로운 윈도우 OS가 작은 진전이 아닌 큰 도약을 의미함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리 마이어슨(Terry Myerson) MS 오퍼레이팅 시스템(OS) 그룹 수석 부사장은 "윈도우10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윈도우로서 첫 걸음을 나타낸다"면서 "고객들에게 일하고 즐기고 서로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해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우리의 가장 포괄적인

운영체제이며 기업 사용자를 위해서도 최고의 버전"이라고 덧붙였다.

마이어슨은 윈도우 10의 출시 시점을 밝히지 않았으나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MS의 한 고위임원은 윈도우 10이 내년 봄 출시로 목표돼 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윈도우 10은 PC 뿐만 아니라 MS의 게임기인 엑스박스(Xbox)로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걸쳐 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MS의 OS는 그동안 PC분야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해 왔으나 모바일 분야에서 구글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IOS에 밀리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MS는 윈도우 10이 어떤 기기에서든 호환이 가능하게 해 사용자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성을 높였다. MS는 특히 프로그램 개발자들을 위해 모든 기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단일 앱스토어를 구축하기로 했다.

MS는 또한 사물인터넷 분야에서부터 전세계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윈

도우 10이 적용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도 윈도우 10에는 사용자들이 선호하던 '시작 메뉴'가 다시 추가됐다. 시작 메뉴는 윈도우 8에서 빠졌던 것이다. MS는 이로 인해 사용자들이 원클릭으로 빠르게 응용프로그램과 파일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한 화면에 4개의 프로그램을 분할해 띄우고 작업 가능하게해 멀티태스킹 능력을 강화 시켰다.

MS는 윈도우 10이 데이터 분실과 훼손을 방어하는 방식 등으로 데이터를 보호해 보안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MS는 프로그램 개발자들과 새로운 윈도우 10에 대해 논의하고 피드백을 받아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1일 '윈도우 인사이더 프로그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서치업체 엔텔 그룹의 사장 겸 수석 애널리스트인 톰 엔델은 이번 공개 행사 참석 후 "윈도우 10은 윈도우 8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들을 갖추었다"면서 "이제 MS는 가장 진보적인 플랫폼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jhkuk@news1.kr



천문학적 기부 불구 게이츠와 버핏 미 부호 1, 2위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하는 미국 400대 부호 순위에서 21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포브스가 29일(현지시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게이츠의 자산은 810억 달러(약 85조6000억원)로 미국인 최대갑부 지위를 고수했다. 2위는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버크셔해서웨이의 회장 워런 버핏이 차지했다. 게이츠와 버핏 회장은 서로 경쟁적으로 벌이는 천문학적 기부에도 불구하고, 둘 모두 보유 주식 가치 상승으로 자산이 늘며 투톱을 유지했다.

게이츠 회장의 경우 자산이 지난해보다 90억 달러 늘었으며 버핏 회장은 지난해보다 85억 달러 증가한 670억 달러(약 70조7700억원)를 기록했다.

이어 3위는 최근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난 오라클의 창업자 래리 엘리슨 회장이 500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올해 자산 가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사람은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로 나타났다.

저커버그는 340억 달러의 자산으로 11위를 기록했다. 그의 자산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150억 달러가 늘어났으며 지난 2년 간 자산이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마켓 워치는 "돌발 변수가 없는 이상 저커버그는 내년 조사에서 10위 또는 5위 안에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10위권 부자들 상당수가 올해 30세



인 저커버그보다 2배 이상 나이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놀라운 것"이라고 밝혔다.

400명의 부호 중 여성은 47명으로 지난해 48명에서 1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부호 중에서는 스탠포드 대학을 자퇴한 뒤 헬렉검사 업체 테라노스를 창업해 저렴하고 신속한 검사로 업체를 한 단계 발전시킨 엘리자베스 허즈(30)가 45억 달러 자산으로 전체 110위를 기록해 주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그녀는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최연소 여성 억만장자라는 명예를 안았다.

한국계 이민자로 의류업체 '포에버 21'의 창업자인 장도원·장진숙 회장 부부도 52억 달러의 자산으로 미국 부호 90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981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이들 부부는 1984년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의류매장 '포에버21'을 열어 꾸준한 매출신장을 기록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포에버21은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각국에 5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jhkuk@news1.kr

Call for a Free Trial Class Now!

the critical reading & writing experts

WEEKLY CLASSES

Year Round Critical Reading and Writing

청담 ReadWrite의 수업으로 학년별, 수업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학년과 2학년 :
Literary Analysis

3학년과 4학년 :
Reading and Writing Workshop

5학년부터 8학년 :
Expository Analysis,
Literary Analysis,
Introduction to Creative Writing

9학년부터 12학년 :
Expository Analysis,
Intensive Essay Writing,
SAT Practice & Review

Special Programs Fall 2014

Vacation Days (9:00am- 3:00pm)
학교에 가지않는 공휴일에 숙제와 독서 그리고 리딩과 라이팅 스킬을 배울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 2014년 11월 11일(화요일)
- 2015년 1월 19일(월요일)
- 2015년 2월 16일~20일(월요일-금요일)
- 2015년 4월 3일(금요일)
- 2015년 4월 20일~24일(월요일-금요일)

Pizza Nights
책을 읽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내용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짧은 영상을 만들고 작품을 발표하는 재미있는 북클럽 시간입니다. 이번달 선정된 책은 The Giver 입니다.

- 2014년 10월 17일 5:00-8:00pm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www.BostonReadWrite.com/schedul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 info@BostonReadWrite.com 이나 전화 857-404-0170 으로 연락바랍니다. 무료 Trial 클래스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세요!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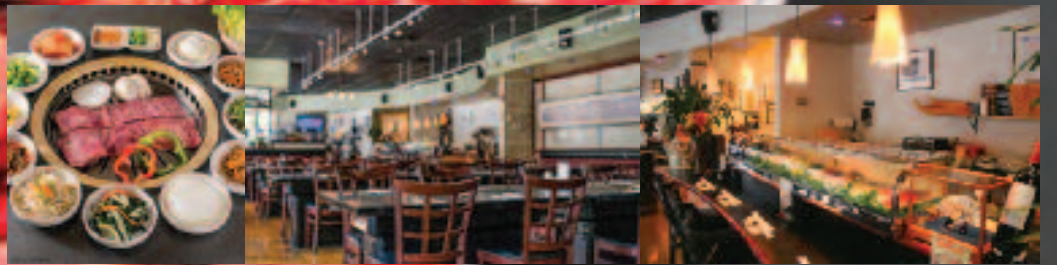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세월호법 제정후 진상조사위·특검 출범...어떻게 진행되나?

진상조사위 17인으로 구성...최장 2년까지 활동 진상조사위 특검 가급적 동시에 운영될 듯... 활동 인원·조사범위 등 세부쟁점 여전

(서울=뉴스1) 박상희 기자 = 여야가 30일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합의하면서 향후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특별검사도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특별법이 제정되면 진상조사위부터 구성되며 진상조사위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정부의 미흡한 구조 시스템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돌입한다.

세월호 참사가 학생과 일반인을 포함한 304명이 희생된 유례없는 사고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상조사위 활동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진상조사위는 총 17인으로 구성된다. 국회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5인을 추천하며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인, 유가족도 3인을 추천한다.

진상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의 호선으로 선출된다. 아울러 진상조사위는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최대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다만 진상조사위는 구인을 강제하거나 자료를 압수하는 등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과 함께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진상조사위가 조사하기 어려운 부분을 특검이 보완하는 등 서로 보완제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앞서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측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만들었다.

특검 임명 절차는 기존의 상설특검법에서 일부 예외조항이 삽입된다.

상설특검법 대로라면 특검은 여야(2명씩)가 추천하는 4명,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하는 3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절차에 유가족이 만족하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67일만인 3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발표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지 못하는 만큼 여당 몫 특검추천위원 2인을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동의하에 임명하기로 했다.

협상 막판 논의됐던 추천위가 결정할 특검후보 4인에 대한 유족 동의에 대해서는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했으나 여측의 반대가 완강해 관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이 최종 추천된 특검은 2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80일(90일+90일)간 활동할 수 있으며 다만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토록 했다.

물론 진상조사위와 특검이 출범하는데까지는 여전히 곳곳에 암초가 산적해 있다.

유가족들은 이미 특검후보 추천 주체에서 자신들이 빠진 것에 대해 반발하며 여야의 최종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최종 합의안에서 유족의 참여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명시했으나 이 문제가 향후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할 인원과 장소의 규모 등에 대해서도 향후 여야간 대립이 이어질 수 있다.

또 진상조사위의 조사권의 범위도 난제다.

야당은 진상조사위에 강제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는 만큼 동행명령권과 자료제출권 등 조사권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반면, 여당의 경우 조사권 강화를 헌법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할 공산이 크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배·보상 문제가 진상조사위 구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여당은 이번 참사의 경우 선사의 문제로 정부가 배상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만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또 한번 정쟁이 지속된다면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 구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sanghwi@news1.kr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Quincy College
Middlesex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OCT. 3, 2014 - OCT. 9, 2014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For coupons, Event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Toll Free No.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RESH! HEALTHY! "TENDER" SWEET!
A KOREAN TRADITION MADE IN AMERICA. SINCE 1982.
 ORGANIC! "SIZZLING" CRISPY! "JUICY"

HEALTH & WEALTH FOR FALL SALE

WHETHER IT'S LOW-CARB, GLUTEN-FREE, FAT-FREE OR WHATEVER...WE'VE GOT MOST OF WHAT YOU NEED TO NOURISH YOUR BODY AND TRIM YOUR WALLET.

마트에서 신선하고 건강한 재료들로, 이번주, 가을 건강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금/토 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

CANADIAN ORGANIC MIXED MUSHROOMS 8oz./pkg.
 캐나다산 유기농 버섯 모음팩 **\$3.99**

FOODCELL BOILED SWEET CORN
 푸드셀 알록이 달록이 찹옥수수 14.1oz.
2\$1.99 ea./for

금/토 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

FUJI APPLE 후지 사과 lb.
\$1.79

FROZEN HEAD-ON SHRIMP 머리 새우 50-60's lb.
\$5.99

금/토 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

WHOLE CHICKEN 통닭 lb.
\$1.79

15 lbs.
HARU HARU MED. GRAIN BROWN RICE 하루하루 현미
\$15.99

Organic 100% DELICIOUS
 ORGANICALLY GROWN, FRESHLY DELIVERED.
 마트의 유기농 제품으로 더 건강하세요.

올가늌 벨리 유기농 저지방 우유
ORGANIC VALLEY Organic Lowfat Milk
 All Flavors - 8fl.oz. x 12ea./pkg.
\$9.99

금/토 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

Koimo Sweet Potato 햇 코이모 고구마 lb.
\$1.79

Onion 양파 10 lbs./bag
\$5.99

금/토 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

Radish 무 박스 box
\$16.99

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Single Belly 양념 벌집 삼겹살 lb.
\$5.99

Boneless Pork Loin 돈까스용 돼지고기 lb.
\$4.99

Beef Patella Bone 도가니 lb.
\$1.29

Beef Flank Steak 앞치마 양지 (육개장) lb.
\$6.99

Golden Crab 골든 크랩 lb.
\$6.99

금/토 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

Whiting 생태 lb.
\$1.99

FROZEN Unagi Kabayaki 우나기 8oz./pkg.
\$7.99

Premium Salted Yellow Croaker 영광 굴비 5.5 lbs./pkg.
\$34.99

NATURE'S YOKE Cage Free Grade A Med. Eggs 네이처스 요크 미디엄 달걀 doz./for
2\$4

KOKUHO Extra Fancy Med. Grain Rice (Yellow) 국보 쌀 (옐로우) 15 lbs.
\$10.99

NONGSHIM Shin Ramyun 농심 신라면 박스 4.2oz. x 16ea./pkg.
\$10.99

NONGSHIM Neoguri Ramyun 농심 너구리 라면 박스 4.2oz. x 16ea./pkg.
\$10.99

HAIOREUM Roasted Seaweed Laver 해오름 도시락 김 Original/Pack 3.15oz. x 3ea./pkg.
\$2.99

HAIOREUM Peeled Roasted Chestnuts 해오름 껍질간 맛밤 3.52oz.
3\$2.49 ea./for

CROWN Choco/White Heim 크라운 초코/화이트 허임 10oz.
\$3.99

BINGGRAE Banana Flavored Milk Drink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6.8fl.oz. x 6ea./pkg.
\$4.99

HAIOREUM Yogurt Flavored Drink 해오름 요구르트 2.2fl.oz. x 22ea./pkg.
\$1.99

CLEANWRAP Plastic Roll Bag 크린랩 위생 롤백 30cm x 40cm - 500cnt/pkg.
\$4.99

SWEETENER Massage Shower Towel 스위트너 사각 패타올 All Colors/3pcs/pkg.
\$1.99

CYCLEAN Microfiber Antibacterial 2 Way Mop 싸이클린 2단 극세사 방결레 ea.
\$12.99

마트 MA 진출 5주년 기념 고객 감사 경품 대축제
5TH ANNIVERSARY SWEEPSTAKES!
 CELEBRATE 5 YEARS OF HMART IN MASSACHUSETTS

SEP. 12TH - OCT. 5TH, 2014 AT ALL MA HMART STORES
 마트에서 장도 보시고 경품 대축제에 참여하세요! (스마트카드 고객에 한함)

Hmart is celebrating its 5th year of business in the state of MA with special sweepstakes event. Get a chance to win Hmart gift certificate when you shop with your Hmart Smart Card! Simply fill out the bottom of your Shopping receipt and insert into our special bin!

DRAWING DATE: OCTOBER 5TH, 2014 AT 5PM

1ST PRIZE (1 WINNER): \$1,000 HMART GIFT CERTIFICATE
2ND PRIZE (5 WINNERS): \$300 HMART GIFT CERTIFICATE
3RD PRIZE (10 WINNERS): \$100 HMART GIFT CERTIFICATE

*In order to give the most customers a chance to win, there will be no duplicate winners. (If you win a prize at both stores, Cambridge & Burlington, you will receive the higher prize.)

HAIOREUM

NEW
HAIOREUM PRODUCT LAUNCH!
Introducing Dumpling that Pops with Flavor!
 Korean dumplings spiced just right. Try them and you'll sing for joy.

장인의 정성으로 품게 받은 해오름 손끝 만두 출시

야, 유가족의 특검후보 추천 참여 논의 여 압박

문희상 "여, 유가족의 특검후보 추천 논의해야"

(서울=뉴스1) 박상희 기자 = 여야의 3차 세월호특별법 합의에 대한 유가족의 반대로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유가족 설득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에도 특검 임명 과정에서 유가족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설득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새누리당을 상대로는 유가족이 참여하는 방안을 즉각 논의하자고 압박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리당은 4명의 특검(후보)군을 확정할 때 반드시 유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며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결코 유족 여러분들을 외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추후 논의하기로 한

유족 참여사항을 당장이라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장은 "이번 합의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참사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유가족이 추천하는 후보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고, 새누리당에서는 유가족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지 않으면 해결되리라고 믿는다"며 "여기서 우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이 만족하지 못한 특별법 제정 합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문재인 비대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자리에 박영선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협상 결과가 진실 규명을 바라는 유족들의 요구에 많이 못 미쳤다"며 "우리당은 협상에서 졌다. 패배를 인정한다. 어떤 비판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비대위원장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승리의 축배를 들지 모르겠지만 참사의 진실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진실은 때가 되면 스스

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이번의 실패와 한숨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sanghwi@news1.kr

문희상, '배려·독심'의 위기관리 능력 보여줘

"개작두" 발언 등으로 당 기율 잡고...협상 과정선 박영선에 힘 실어줘 당면 과제인 '당 재건', 모바일 투표 등 향후 어떻게 이끌어갈지 주목

(서울=뉴스1) 김현, 김영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원투수'로 나선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세월호특별법 타결로 새삼 주목받고 있다.

'비대위원장 외부영입' 불발을 계기로 불거진 박영선 원내대표의 탈당과 문으로 인해 비대위원장에 추대된 문 위원장은 이번 세월호 특별법 타결과 새정치연합의 국회 등원 과정을 매끄럽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문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요즘 초·재선 중에 너무 막 나가는 의원이 많다.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좌우 양극단에 있는 10명 정도가 당을 망치고 죽인다", "해당행위자는 개작두로 치겠다" 등의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당의 기율을 잡는 데 주력했다.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 체제 때는 물론 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던 시기, 일부 강경파들이 당 지도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행태를 보여왔던 것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동시에 문 위원장은 두 차례의 합의 문 추진 불발 사태로 흔들리던 박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며 박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문 위원장은 지난 22일 김무성 새

리당 대표와 만나서도 "세월호특별법의 주인공은 원내대표"라고 원내대표 역할론을 강조했다.

두 차례나 합의안을 거부하던 세월호 유가족들과 접촉하며 '신뢰 쌓기'도 주력했다. 문 위원장은 전명선 위원장 등 세월호 가족대책위 신임 집행부와 면담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유가족들의 요구에) 모자르더라도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문 위원장은 문재인 비대위원 등과 함께 특별법 협상의 최종 서명 전 유가족들을 만나 양해를 구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만나지는 못했다고 한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의 막판 고비였던 30일 열린 의원총회에선 문 위원장의 독심이 돋보였다.

문 위원장은 의총에서 일부 강경파들의 국회 등원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자 "이래 갖고 뭘 해먹겠느냐. 최악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졸졸 따라다니는 거다. 이게 끝이 아니다"라며 등원을 밀어붙였다.

여기에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노무현)계의 원로격인 이해찬 의원이 '등원 불가피론'을 펴며 문 위원장의 지원군으로 나서 결국 등원을 이끌어냈다.

한 당직자는 1일 뉴스1과 통화에서 "세심한 배려와 독심을 동시에 갖춘 문 위원장의 리더십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과 국회 등원에 결정적 역할

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위원장이 이번에 아주 큰일을 해냈다. 문 위원장이 처음에 과격할 발언을 늘어놓고 할 때 왜 저렇게 비판도 했는데, 그게 복잡한 당내 사정을 하나로 결론을 모으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래서 성공했다"며 "문 위원장이 정치력 과시도력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과 국회 등원을 이뤄낸 문 위원장에겐 앞으로 '당 재건'의 과제가 남아 있다.

이미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예영)를 출범시키며 당 혁신을 위한 시동은 걸었지만, 조직강화특위 구성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등 당내 계파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녹록치 않은 과제들이 당면 과제로 다가와 있는 상태다.

'모바일 투표' 재도입 시사 발언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문 위원장이 조직강화특위와 전대준비위 구성을 큰 과열음 없이 이끌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문 위원장은 이날엔 국군의 날을 맞아 '안보행보'에 주력했다. 문 위원장은 충남 계룡대 연병장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gayunlove@news1.kr

국회의장, 오랜만에 균형감 빛나

정의화 국회의장 여야 압박에도 균형감각 유지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여야가 30일 세월호 참사 167일 만에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고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입법부 수장'인 정의화 국회의장도 큰 짐을 덜게 됐다.

정의화 의원은 여야간 세월호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여러 차례 중재를 시도하다 여야 양측 모두로부터 비판과 압박을 동시에 받아 왔지만,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끝내 여야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정상화로 이어지기까지 정의화 의장의 마음고생은 적지 않았다.

정의화 의원은 두차례의 야측 합의안 추진 불발 사태를 겪으면서 세월호 특별법이 장기 교착상태로 빠져들자, 지난 4일 여야를 향해 국회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10일에는 여야에 조속한 특별법 협의를 재촉한 뒤 11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아울러 여야 원내대표에게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협의가 진척될 기미가 안 보이자, 정의화 의원은 '의사일정 직권결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본회의에 계류된 90개의 법안을 처리하기



정의화 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위한 본회의도 26일로 잡았다.

그러자 새정치연합은 "직권상정용 국회의장이냐"(박영선 원내대표)고 강하게 항의했다. 반대로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나서 정의화 의장과 면담을 갖는 등 '26일 본회의 개최' 약속 준수를 압박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정의화 의원은 마지막까지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를 이어갔다.

정의화 의원은 26일 본회의를 앞두고 회동조차 갖지 않던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재개하자, 새정치연합의 연기 요구를 수용해 어렵사리 열었던 국회 본회의를 안건 상정 없이 9분 만에 산회하고 본회의 일정을 30일로 재지정했다.

이에 새누리당내 강경파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연판장까지 돌렸다.

국회가 정상화된 이날에도 정의화 의장의 간접적 압박도 주요했다.

gayunlove@news1.kr



맛있을 수 없는 한국의 맛을 압구정에서 느껴보세요

압구정

압구정이 **갈비**와 **냉면** 전문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114 Beacon St, Newton, MA
예약문의 / 617-527-7888

단체석 노래방 시설 완비/뉴튼 센터에서 차로 3분 거리

<보스톤 처음으로 **즉석**에서 직접 뽑는 냉면을 맛보세요>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의 20% 할인

- 헤어컷
-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 트리트먼트
- Up-Do
- 메이컵
- 매니-페디큐어
- 왁싱
- 각종 펌

웨딩헤어+메이컵
일요일도
예약받습니다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k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회사 상호가 변
경되어도. 항상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곳에
있겠습니다.

KO / MÃO / HAND / 손 / MANUS / MAIN /

NETWORK HEALTH는 이제

TUFTS  Health Plan

NETWORK HEALTH

입니다.

고객을 향한 우리의 약속도 이전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Network-Health.org 에서 확인하십시오.

Tufts Health Plan - Network Health 를 포함하여 고객님의 건강 계획 옵션에 관한 모든 것은 MAhealthconnector.org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4 Tufts Health Public Plans, Inc.

제2롯데 임시개장 승인...롯데 "10월 중 개장 가능"

서울시 "조건부 승인, 안전사고 발생하면 개장 취소" ... 석촌호수 주변 안전문제에 대해 주민 우려 여전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타워 저층부에 대한 임시개장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롯데 그룹은 임시개장 지연으로 입점 예정된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이달 중에는 상업동을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롯데가 지난 6월 제출한 저층부 임시사용 신청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시는 프리오픈 기간 동안 관계부서 협의와 시민자문단 검토를 거친 결과 시민 안전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들이 마련됐고 입점 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임시개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공사장 안전 △교통난 관리 대책 △석촌호수 안전 용역 등 시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롯데가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개장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건을 달았다. 임시개장 기간 동안 시민 안전을 위협할만한 사고 등이 발생해도 공사 중단

,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롯데는 앞으로 초고층 타워동 공사를 진행할 때 낙하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의 사전점검을 받아야만 한다. 타워동에서 낙하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업동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롯데는 또 △타워동 낙하물 방지대책 △타워동 주변부 방호 △타워크레인 양중대책 △안전점검시스템 등의 공사장 안전을 위한 대책들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시는 이를 지키지 않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시사용 취소는 물론 공사 중단, 사용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승인 조건에 명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임시개장 이후 주변 교통난이 예상보다 악화되면 제2롯데주차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롯데에 주문했다. 주차 예약제와 주차요금 완전유료화 등 자가용 차량 이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들도 병행된다.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제2롯데월드에서 열린 민관합동 소방훈련에서 119소방대원들이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다

시는 석촌호수 주변 안전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 및 평가용역'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롯데 측은 이와 별도로 한국지반공학회, 대한하

천학회, Arup 등 3개 업체와 함께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건기 행정2부시장은 "용역 결과에서 제2롯데월드 공사가 석촌호수 수위저하 및 주변 지반 침하 원인이라고 판명되면 롯데가 이와 관련된 대책을

별도로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도 조건 중 하나"라고 말했다.

haezung2212@news1.kr

김우중 모교방문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연세대 방문 첫 강연 "선진국 첫세대 되지 못하게 해미안" "청년 창업인 키워 성과를 생전에 보고 싶다" 희망 밝혀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이 처음으로 모교인 연세대의 강단에 섰다. 연세대가 배출한 최고의 글로벌 경영인으로 꼽혔지만 그의 모교 방문은 쉽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2일 연세대 상경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초청강연을 통해 '자신만만하게 세계를 품자'라는 주제로 학생들과 마주했다.

김 전 회장은 "부족한 자신을 모교가 초청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문을 연 뒤 "자신의 개발도상국의 마지막 세대가 될 테니 후배들은 선진국의 첫 세대가 되라고 말해 왔지만 그렇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미안함을 강조할때 김 전 회장의 목소리는 가볍게 떨렸고 목이 메어왔다. 경영실패와 사상 초유의 부도 등 자신에 대한 일각의 비난을 의식한 듯 "연세대 출신으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도 했다.

그는 미안함과 감회를 말할 때에는 선배로서 기업인으로서 교훈을 주고자 애썼다. 김 전 회장은 "선배 세대가 현재같은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어떻게 되면 선진국이 될 수 있는지를 말해 주겠다고 본론을 꺼냈다.

그는 성과를 내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결과를 낸 뒤에는 안정적인 강한 제조업이 있어야 한다고 우선 밝혔다. 북한 지역에서 통일 이후에도 필요성이 커지는 것도 강한 제조업을 강조하는 것과 연결시켰다.

김 전 회장은 "경제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며 "내수가 넓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 하니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통일 문제와도 연결시키며 남북한이 하나의 시장이 되면 중국이라는 큰 내수 시장을 확보하게 되고 미국이나 EU에 못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공업 경쟁력 강화와 북한 개발을 위해 중국 동북3성에 남북한이 함께 참여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제2의 창업 세대를 꿈꾸는 이들을 선발해 동행하면서 창업의 꿈을 이뤄보려고 한다"며 "(그들의 성취) 결과를 생전에 보고 싶고 내 삶에 흔적을 이렇게 남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강연에는 정갑영 연세대 총장을 비롯해 송자 전 연세대 총장,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홍성찬 연세대 상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대우관 각당헌에서 강연하고 있다

경대학장 등 교수들과 400여명의 학생들이 성황을 이루며 김 전 회장의 강연을 들었다. 흥성찬 학장은 김 전 회장을 소개하며 "5명의 직원들로 대우 실업을 창업한뒤 대우그룹으로 성장시켜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대그룹으로 일궈냈다"며 "캠퍼스 부지 제공 등 연세대 발전에 큰 공헌을 했지만 모교에는 한번도 온 적이 없고 스피치를 한 적이 없는 김 전 회장이 처음 이 자리를 방문했다"고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baesm@news1.kr

달러환율 1060선 상향돌파

달러강세,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인하 기대 겹쳐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원달러 환율이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나가며 1060원선을 돌파했다. 여름 달러약세에 1000원선 붕괴마저 우려됐으나 9월들어 급속히 상승, 1100원대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0시34분 현재 전거래일 대비 8.55원 오른 1063.7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전일대비 2.8원 오른 1058.0원에 출발해 장중 1063.95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원달러환율이 오르는 것은 달러화 강세와 엔화 약세에 대응한 것이다. 이날 일본 엔/달러환율은 1일 도쿄외환시장에서 한때 달러당 110엔을 터치했다. 엔/달러환율이 110엔에 이른 것은 2008년 8월 이후 6년 1개월만이다. 이후 엔화는 109.8엔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8월 이후 엔약세가 가속되면서 그 영향을 원/달러환율도 같이 받고 있다. 엔화의 급속한 절하로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가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원화가 같이 절하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시장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원화가 동반약세를 보이며 원엔환율도 965원 수준으로 올라 완충이 됐다.

국내적으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가 꺾이면서 국채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게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고채 3년 및 5년만기 수익률은 9월 1일 각각 2.518%, 2.737%에서 9월 말 2.297%, 2.498%로 떨어졌다. 1일도 국고채 3년 및 5년물 금리는 2.241%, 2.450%로 추가로 하락했다.

hyuna@news1.kr



하나여행사 HANA TRAVEL



- 국내/국제 항공권 할인
- 한국, 중국, 일본, 유럽, 중남미, 하와이, 캐나다, 알래스카 등 관광 패키지



전문가와 함께 편안한 여행을 설계하세요.

617-713-4262(HANA)
email: hana.travel@gmail.com

Toll Free 1-800-368-6977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따뜻한 봄날의 시작을
헤어스타일 영이 책임지겠습니다"

남자컷 25불 / 여자컷 30불 / 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 / 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 합니다.

경혁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 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명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검찰 방침에 '사이버 망명길' 오르는 네티즌들

사이버 전담팀 꾸렸지만...검찰 "사적 공간 검열·수사 사실 아냐"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사이버 망명'.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뒤 일부 네티즌들의 움직임과 관련해 회자되고 있는 단어다.

최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팀장), 검사 4명 등 총 5명으로 사이버 허위사실유포 전담팀을 구성해 인터넷상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확산·전달자도 처벌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검찰의 움직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며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처하라고 주문한 이후 검찰이 즉각적으로 박 대통령의 지침에 반응하면서 전개됐다.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이틀 만에 대검찰청은 "인터넷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허위 사실 유포자를 상시 적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카카오톡, 라인 등 국내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24시간 감시해 처벌한

다"는 루머까지 확산되며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를 이용하는 '사이버 망명'을 떠나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의 현실화를 입증하듯 러시아 개발자가 만든 독일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Telegram)'이 국내 네티즌 사이에 뜨거운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국내 애플 앱스토어에서 연일 무료 다운로드 부문 1위를 차지하고, 구글플레이스토어에는 사용자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최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VK를 설립한 니콜리아·파벨 두로프 형제가 2013년 개발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으며 이야기할 권리(Talking back our right to privacy)'를 모토로 만들어졌다.

특히 대화상대를 일일이 암호화할 수 있고, 대화 내용이 저장되지도 않으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모니터링이 수월하지 않다는 보안상 장점이 있다.

올해 초 20만 달러(약 2억원)의 상금을 내건 해킹 콘테스트에서 우승자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바일 메신저 등에 대한 검열이 감행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은 검찰은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검색하거나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네티즌들은 그조차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인터넷 SNS 상에서는 "이제 카톡의 시대는 끝났다", "80년대로 다시 돌아가는 기분이 들고 이젠 온오프라인 사

생활마저 두렵다", "피난왔다. 조금 있으면 미니스커트도 못입을 듯", "현 정부의 정신나간 행동에 의해 카톡이 검열의 대상이 되어 이렇게 메신저 망명길에 올랐다" 등의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직접 검색하거나 수사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

다"라며 "사이버 허위사실유포 전담팀에서는 익명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추적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담당하게 된다. 전담팀을 통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면 그만큼 피해자 구제가 빠르게 되는 등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ooklee@news1.kr

여야 '카톡 사찰' 공방 "인권보호 위해" vs "공권력 남용"

(서울=연합뉴스) 박상휘, 김영신 기자 = 여야는 2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을 구성키로 하면서 일고 있는 이른바 '카카오톡 사찰'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사이버 수사팀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공권력 남용이자 사생활 침해"라고 반박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은 인터넷 문화 건전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무분별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사회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뿐 건전한 국민 여론 조성에 장애가 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인권보호와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시스템을 검열, 사찰로 둔갑시켜 네티즌을 자각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겉으로 네티즌의 눈치를 보느라 반대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히 문재인 의원이 최근 네티즌 7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점을 언급하며 "사이버 전담 수사팀은 이같은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많은 피해를 경험한 만큼 무작정 반대를 외칠 게 아니라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법치"라며 "카카오톡을 들여다보는 것은 법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카톡 사찰은 공권력 남용이자 사생활 침해로 국가에 대한 비판을 감시하려고 개인이 사용하는 카톡을 감시하는 것은 너무나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

eriwhat@news1.kr

이석우 대표 "오라는데 안 갈 수 없어" 시인

다음카카오 간부 검찰 대책회의에 참석 논란 가중

(한겨레) 김재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발언을 한 뒤, 검찰이 인터넷 공간에 대한 검열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해 연 '관련 기관 대책회의'에 다음카카오(옛 카카오톡) 간부가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카카오톡까지 검열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다음카카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을 제공하는 업체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1일 다음카카오 출범식 뒤 '검찰 대책회의'에 카카오톡 간부가 참석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나? 는 <한겨레> 기자의 질문에 "검찰이 오라는데 안 갈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참석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그는 이어 "다음카카오는 어느 나라에서건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따른다는 방침이다. 국가 기관이 법 집행을 할 때 국내 업체와 외국 업체를 동등하게 대우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경찰이

'6·10 청와대 만민 공동회' 등 세월호 사고 관련 집회를 주최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이용 내역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비난하며, 검찰의 관련 기관 대책회의에 다음카카오의 간부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의 검열에 대한 카카오톡 이용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사이버 망명'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줄 잇는 '사이버 망명'으로 독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국내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카카오톡이 울상을 짓고 있는 상태다. 텔레그램은 러시아의 백만장자 형제가 개발해 독일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메신저로,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까지 모두 암호화해 보안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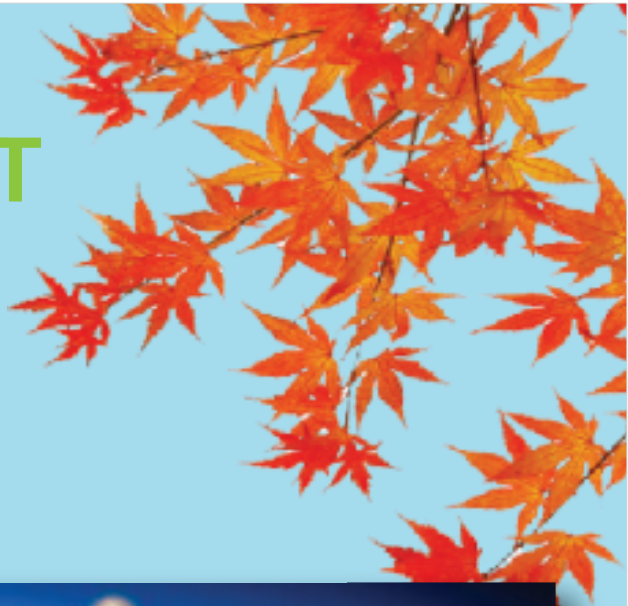


다음카카오 로고

난달 19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인터넷 공간 검열 강화를 뼈대로 한 사이버 검열 계획을 발표한 뒤부터 텔레그램 다운로드 순위가 급등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100위권 밑이던 텔레그램의 다운로드 순위가 검찰 발표 이후 사흘 만에 45위로 뛰어올랐고, 24일 이후에는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던 카카오톡까지 제쳤다. 검찰 발표 이후 일주일 사이에 텔레그램의 국내 하루 이용자가 2만명에서 25만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jskim@hani.co.kr

10月 AMORE FALL EVENT




WORLD'S FIRST AIR CUSHION® XF
BROAD SPECTRUM SPF 50+ NATURAL COVER

에어쿠션® 구매고객님께
스템셀 3종 트라이얼 키트를 증정합니다



\$90 이상 구매시
기분도 순신크 무공해 분향제다
스텔라디에 구매가능한 무공해 순신크
순신크도, 스템셀도 증정합니다!
순신크, 스템셀, 순신크도
구매 시에 증정



당신도, 경험하세요!
피부 탄력의 끝



슈퍼바이탈 크림 구매시 슈퍼바이탈 5종 샘플 키트를 증정합니다

AMORE

보스톤점

설화수, 아이오페, 라네즈, 러, 미장센
INSIDE H MART BURLINGTON 781.229.6800 10/1 ~ 10/31



Seoul Soup in Seoul 서울설령탕 SEUL SOLONGTANG

서울 SEOUL KOREAN · SUSHI · WINES

SUMMER SPECIAL 냉면개시!

한식 세계화의 종가집이 되겠습니다.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6 Cambridge St, Boston
617.973.6680
SeoulFoodBoston.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답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경철



미주한인개신교장로회

세빛교회

NEW LIGHT KOREAN CHURCH

주일예배 : 오전 11시 30분
주일영어예배 (EM) : 오전 11시 30분
주일학교 (유, 초, 중, 고) : 오전 11시 30분
수요예배 : 오후 8시
금요기도회 : 오후 8시
새벽기도회 : 오전 6시 (월요일 제외)

담당목사 김대업
730 Main St. Waltham, MA 02451
781-652-0001 / NewLightKC.org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 30분
담당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395 주소: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thony of Padua Parish Korean Church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한인 성당에서는
새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45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stdaveluychurch.org
Mass: 11:30am(교중미사), 4:30p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혁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성경말씀을 통한 영혼의 성장을 위한

세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보스턴한인교회

담당목사: 송연호

안식일 학교: 토요일 오전 9:30
안식일 설교예배: 토요일 오전 11:00
중고등부 학생반: 토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일요일 오전 6:00
제자훈련: 화요일 저녁 8:30(스카이프)
영어교실: 화요일 오전 10:00

부설: 보스턴 세례할 센터 / 17년간 합연들을
위해 해당 무료 집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보스턴 남부지역 보스턴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주소: 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전화: 781-279-3270 bkadventists@gmail.com
www.bkadventists.com



엔티비 (e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티보 개학기념 학생할인
폭탄세일!

\$14.99 (2년 약정시)

학생 할인
2014년 9월5일-10월4일까지
보스톤 코리아 티보가
학생 여러분께 BIG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정규가격 : \$34.99

1.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학생 할인 \$14.99(2년 약정시)
2.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시니어 할인(65세이상)
\$24.99(2년 약정시)
3. 티보 런칭기념 특별할인 연장!
10월 30일까지
\$39.99 상품 개통으로부터 3개월간
월 \$9.99으로 가격인하
(2년 약정시, 3개월 후 \$34.99로 과금)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617.650.665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택매매, 구입, 임차/사업체알선

Century 21 Avon

김택운
Realtor

Cell: **(617) 678-9330**

Fax: (617) 497-9947 E-mail: tkim@century21avon.com
1675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02138



H+

고국의 품에서 당신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유방·갑상선센터
유방질환 전문 센터
- 알코올케어센터
보스톤 한인에서 최초
- 자궁근종센터
내과·외과·자궁근종 전문
- 심혈관·뇌졸중센터
보스톤 지역 최초 24시간 응급
- 척추·관절센터
신물 치료 센터 (신물 치료 전문)
- 내시경센터
최고 내과 내시경 전문

617-583-2993
www.newyjh.com

고국방문 건강검진 VIP 입원 종합검진 보: 200만원 / 미: 210만원
입원 종합검진 보: 150만원 / 미: 160만원
당일 종합검진 보: 80만원 / 미: 85만원

진료과목
소아과,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내과, 신장내과, 영아과, 산부인과, 내과, 흉부외과, 피부과, 심장내과, 척추·관절센터, 알코올케어센터, 알코올치료센터, 영아과, 소아과, 내과, 외과, 내시경센터, 종합검진센터



합창단원모집



보스톤 멘토스 음악원에서
B.Mentors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프로그램

- 독창적인 스트레칭 체조를 통한 발성 호흡의 이해와 자기만의 음색 개발
- 전문적인 보이스 트레이닝을 통한 발성 원리의 이해와 운택한 소리의 완성
- 솔로, 중창, 합창곡 연습을 통한 음악의 이해
- 연주를 통한 지역공동체 봉사와 연례 정기연주회

보스톤 멘토스 청소년합창단 (B.Mentors Youth Chorus)

함께 합창음악을 배우고 연주하며 하모니를 만들어갈 청소년합창단원을 8-12학년의 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연습 시간: 매주 일요일 오후 4:30~6:00 회비: 가을학기 \$150, 봄학기 \$200

기간: 1년 프로그램 (가을학기: 2014년 9월 28일 ~ 12월 14일,

봄학기: 2015년 1월 11일 ~ 6월 14일) *연주회 일정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스톤 멘토스 성인합창단 (B.Mentors Adult Chorus)

음악과 문화를 사랑하는 한인을 대상으로 성인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B.Mentors 성인합창단은 독창적인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삶의 활력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습: 매주 목요일 오후 7:30~9:00 회비: 월 \$30

접수 및 문의

이메일: bomentorsmusic@gmail.com 전화번호: 617) 218-7555

주소: 326 Washington St, Annex, Suite 10, Wellesley Hills, MA 02481



대한통운 보스톤 지사

<http://www.keboston.com>

대한통운 과 CJ 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장 오픈 !!
뉴잉글랜드의 모든 이사를 맡겨 주십시오.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타주이사
한국 및 타주 자동차 운반

고국의 전지역 일주일 도착을 보장하는 **항공택배**



24시간 이사상담

978-461-2424 / 1-888-239-9377

e-mail 상담 : huny@keusa.com

51 Knox Trail, Acton, MA 01720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 비지니스, 민사 등 각종 소송 관련



조규성
민법/상법 변호사



양선영
이민 변호사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1111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Tel: 617.969.7979 / 617.877.3435

Fax: 617.969.4959 www.stevesuh.com / www.suhlwyer.com

패트리어츠 참패, 왕조의 몰락?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지난 29일 먼데이 나잇 풋볼로 치러진 캔자스시티 치프스와의 경기에서 14대 41로 대패를 당했다. 어느 팀이나 경기에서 승리를 할 수도 있고 패배를 할 수도 있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NFL 최강팀으로 군림해온 패트리어츠가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다.

스포츠 전문 매거진 블레처리포트(<http://bleacherreport.com>)는 경기 직후 “치프스에게 부끄럽게 참패를 당한 패트리어츠 왕조가 몰락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로 패트리어츠의 패배 소식을 전했다. 단순히 한 경기에서 패배한 것으로 보기에는 공격과 수비, 모든 면에서 부끄러운 경기 수준을 보여준 패트리어츠가 더 이상 NFL 엘리트 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패트리어츠는 왕조라는 수식어가 어울릴 만큼 지난 10여년 간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2001년 시즌 이후 수퍼볼에 5회 진출해 3번 우승을 했고, 최근 11시즌 동안 10번 지구 우승을 하고 같은 기간 동안 AFC 챔피언십 경기에 7번이나 진출했다. 2001년 이후 정규시즌과 포스트시즌을 통틀어 패트리어츠보다 더 많은 승리를 거둔 팀은 없다.

주전 선수들의 부진과 부상 등 갖은 악재에도 패트리어츠는 매년 지구 우

승을 차지하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빌 벨리치-탐 브래디가 있는 한 패트리어츠는 언제든지 수퍼볼을 넘볼 수 있는 팀으로 여겨졌다.

올해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풋볼 전문가들은 패트리어츠가 같은 AFC 소속의 브롱코스보다는 전력이 약하지만 무난히 상위 시드를 받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패트리어츠는 시즌 시작부터 부진한 경기를 펼치더니 치프스 전에서는 역대 최악의 졸전 끝에 패배했다.

공격과 수비 모든 면에서 패트리어츠는 수준 이하의 경기를 펼쳤다. 그러나 특히 오피시브 라인과 디펜시브 라인이 부실했다.

NFL 경력이 15년에 접어든 쿼터백 탐 브래디는 159야드에 1개의 터치다운, 2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했다. 이번 시즌 4경기 동안 791야드, 터치다운 4개, 인터셉션 2개를 기록 중인 브래디는 역대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37세의 노장 쿼터백의 실력이 저하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패스 러시에 대한 방비를 할 줄 모르고 쿼터백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패트리어츠의 오피시브 라인이라면, 리그 최고의 쿼터백인 페이튼 매닝이나 아론 로저스가 있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패트리어츠의 주전 오피시브 라인



쿼터백 탐 브래디는 치프스전에서 2번째 인터셉션 후 교체되어 벤치를 지켰다

맨 5명 중 2명이 프로 경험이 전혀 없는 루키다. 그나마 라인의 중심을 잡아 주어야 할 베테랑들마저 상대팀의 패스 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다.

코치 스태프마저 이해할 수 없는 전술을 펼치고 있다. 패트리어츠는 오피시브 라인 선수들에게 고된 포지션을 부여하지 않고 경기 중에 로테이션을 하고 있다. 한 가지 역할도 제대로 소

화하지 못하는 선수들을 여러 포지션에 배치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역할이 세분화 되어있는 풋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디펜시브 라인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패트리어츠는 기존에 사용하던 4-3 포메이션을 버리고 올해부터 3-4 포메이션을 디펜시브 라인에 적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대팀의

러닝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는 패트리어츠의 3-4 포메이션 실험은 아직까지는 실패라고 볼 수 있다.

패트리어츠는 다음 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는 벵갈스를 상대한다. 치프스전에서 보여준 실력에서 나이지 않는다면 패트리어츠의 패배가 예상된다.

jsi@bostonkorea.com



글쓴이: 정철화, Ph.D.
978-726-6979
jungc811@hotmail.com
Stow Acres Country Club
58 Randall Rd, Stow, MA 01775

중년의 아름다운 저녁 나들이

지난 월요일 저녁, 아내와 함께 단 둘이서 9홀 골프를 했다. 아내와 단 둘이서 골프장에 나와서 라운딩을 한 것은 아마도 20년은 되었을 것이다. 그 사이에 간간히 딸과 함께, 한국에서 방문한 친지들과 함께, 혹은 친구들과 섞여서 골프를 치곤 했지만 아내와 단 둘이서 골프 라운딩을 마지막으로 한 것은 아들 연우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잠시나마 바람 쐬는 차원에서 골프장을 찾은 것으로 기억된다. 아픈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려운 심정이었지만 잠시나마 아들 격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어 해맑게 웃던 아내의 귀여운 얼굴은 오랜시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된다. 골프라는 운동이 그렇게도 사람의 정신적 심리적 휴식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골프에 대하여 평생 직업으로 해도 의미가 있겠

다는 마음을 그때 견고하게 했었던 것 같다.

당시 이십 대였던 아내가 이제는 아들 녀석을 분가시키고 사십 대의 막바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난 시간들이 흘러갔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이십여년의 시간들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다. 많은 것들을 접하면서 느끼고 배우고 깨달으면서 변한 것들도 참 많은데 어떤 것들은 오히려 변하지 않고 고이고이 잘 보관되어 있어서 다행이다. 아름다운 것들은 변하지 않고 잘 보존되어야 하고 추한 것들은 변화되고 없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와중에서도 한가지 고이 잘 간직되어져 온 것이 하나 있다면 아내를 바라보는 나의 눈이다. 철없던 학생시절부터 나의 아내는 내가 선택해서 힘든 일들을 만나더라도 서로 아껴주고 서로 손잡고 긴나긴 여정을 아름답게 나가자고 결심했던 그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면 눈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다는 것이다. 신문에 있는 글자는 리딩글래스가 없으면 보기 힘든 상태로 변한 눈을 감안하면 변하지

않은 마음의 눈은 신통할 따름이다.

자식들 키우랴 남편 챙기랴 정신없이 지내왔던 시간들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나 싶었는데 이제는 모든 여성이 한번은 겪어야 하는 갱년기 속으로 어느덧 들어와 있다. 육체적으로 어려운 기간을 잘 통과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얼마 전부터 시작한 하루에 30분 산책하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효과를 내고 있는 모양이다. 밖에 나가 운동하기를 싫어해서 골프도 거의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의로 함께 골프를 하자고 하니 뭔가 진척이 있음에 틀림없다. 저녁 5시쯤,

골프장에 거의 사람들이 없을 때 골프를 하다 보니 정말 드넓은 잔디밭을 돌이서 산책 나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기면서 서둘러 공을 치지도 않았고 구태여 점수를 매기지도 않았고 공이 잘못나가면 자유로이 멀리건도 사용했다. 둘러싸여진 나무숲에는 한창 물들어가는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 아내와 어깨동무하며 젊은 애들처럼 셀카도 동서남북으로 찍어보았다. 너무 좋아하면서 해맑게 웃는 아내의 얼굴에서 20여년전 보았던 행복한 자유로움이 묻어나서 더 아름다웠던 저녁 나들이 골프였다.



'임창우 결승골' 남자축구, 북한 꺾고 28년 만에 금메달

연장 접전끝에 1-0 승리

(고양=뉴스1스포츠) 임성일 기자 =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28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우뚝섰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일 오후 8시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에서 연장 후반 종료직전 터진 임창우(대전)의 극적인 결승골에 힘입어 북한을 1-0으로 제압했다.

이로써 한국은 1986 서울 아시안게임 이후 28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며 역대 4회(1970년·1978년(이상 공동우승)·1986년·2014년) 우승을 기록, 이란(1974년·1990년·1998년·2002년)과 함께 역대 최다 우승 타이틀 이뤘다.

또 1978 방콕 대회 이후 36년 만에 남북이 맞붙은 아시안게임 결승 무대에서 승리를 챙기며 북한과의 역대 아시안게임 상대 전적에서도 2승1무1패로 앞서게 됐다.

한국은 4강 태국전과 같은 포메이션을 꺼내 들었다. 2선에 김승대(포항)와 이재성(전북), 이종호(전남)가 나섰고, 중원에서 박주호(마인츠)와 손준호(포항)가 호흡을 맞췄다. 포백으로 김

진수(호펜하임), 장현수(광저우 부리), 김민혁(사간도스), 임창우가 선발 출전했다. 김승규(울산)가 골키퍼 장갑을 꼈다.

전반 초반부터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다. 김신욱(울산)을 벤치에 앉힌 한국은 김진수와 임창우를 활용한 좌우 측면 크로스를 앞세워 공격의 물꼬를 텄다.

북한은 투박하면서도 거친 플레이로 일관하면서 한국의 공격을 조기에 차단했다. 한국은 상대와 볼 경합을 벌이다 쓰러진 이재성이 전반 20분 만에 부상으로 나가고 김영욱(전남)이 투입되면서 빠르게 교체 카드 1장을 써야 했다.

전반 중반이 넘어서자 북한의 반격이 거셌다. 전반 25분 심현진의 오른발 슈팅이 골대를 넘어갔고 1분 뒤 서현욱의 오른발 슈팅도 옆 그물을 흔들었다.

한국은 전반 41분 좋은 찬스를 놓쳤다. 김승대가 오른쪽에서 올린 코너킥을 이종호가 몸을 던져 헤딩으로 연결했지만 리명국 골키퍼가 몸을 던져 가까스로 막아냈다.

전반을 0-0으로 마친 한국은 후반 28분 결정적인 위기를 넘겼다. 림광혁

의 오른발 증거리 슛이 수비수 맞고 오른쪽 골대를 살짝 벗어났고, 1분 뒤에 박광룡의 헤딩슛은 골대를 강타했다.

한 차례 파도가 몰아친 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잡았지만 한방이 아쉬웠다. 많은 기회를 잡고도 골을 터트릴 결정력이 부족했다.

0-0으로 돌입한 연장전에서 한국은 중원에서 짧은 패스를 통해 경기를 풀어나갔다. 한국은 연장 전반 한 차례 기회가 무산됐다. 연장 전반 8분 이종호가 문전 앞 혼전 상황에서 오른발 슛을 때렸지만 그대로 골문을 넘어가면서 땅을 쳤다.

한국은 연장 후반 3분이 되어서 김신욱을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한국은 김신욱을 활용한 롱볼로 전술에 변화를 줬다. 김신욱은 2분 뒤 롱패스를 받아 헤딩으로 떨궈고 달려들던 김승대가 발을 뻗었지만 살짝 빔나갔다.

0-0으로 끝날 것 같던 경기는 임창우의 발 끝에서 승부가 갈렸다. 연장 후반 추가시간에 벌어진 문전 앞 혼전 상황에서 임창우에게 공이 왔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우승을 결정 짓는 한 방으로 그렇게 경기는 끝이 났다.

alexexi@news1.kr



2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 남한과 북한의 경기 연장 종료직전 결승골을 터뜨린 임창우(오른쪽)가 김진수와 환호하고 있다.

'믿음'의 이광종 리더십, 28년 만에 한국축구 정상에

역대 최악체 평가 대표팀으로 묵묵히 원했던 큰그림 그려

(인천=뉴스1) 이재상 기자 = '역대 최악체'란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 그러나 이광종 감독은 조금해하지 않으며 묵묵히 자신이 원했던 큰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고대하던 아시안게임 우승 트로피를 28년 만에 한국에 안겼다.

한국 축구가 마침내 아시아 정상에 올랐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일 오후 8시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 북한과의 경기에서 1-0으로 이겼다.

경기 후 이광종 감독은 비로소 환하게 웃었다. 태국을 꺾고 28년 만에 결승에 올랐을 때도 그는 웃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문턱에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채찍질하며 선수들을 독려했다.

이광종 감독과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수들은 무엇보다 굳은 믿음이 있었다. 17세 이하 대표팀부터 선수들을 지켜본 이 감독은 개개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

호 신뢰가 있었기에 한국은 위기 때마다 뿔뿔 뿔쳐 정면 돌파를 할 수 있었다.

대회를 앞두고 합류가 유력했던 손흥민(레버쿠젠)이 소속팀 사정으로 차출이 불발됐다. 당황할 법도 했지만 이광종 감독은 오히려 "우리 에겐 손흥민 외에도 20명의 뛰어난 선수가 있다. 이들이 각자 제 몫을 해 줄 것"이라며 담담하게 말했다.

이어 조별 예선 2차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다시 한번 위기에 직면했다.

공격수 김신욱(울산)과 윤일록(서울)이 부상으로 쓰러졌다. 윤일록은 인대 부분 파열로 이번 대회를 그대로 마무리 했다. 김신욱도 생각보다 회복 속도가 더더 4강 태국과의 경기까지 그라운드에서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이광종 감독은 조금해하지 않았다. 대체 자원인 이용재(나사키), 이종호(전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격을 이끌어 갔다. 한국은 고비였던 8강 한일전을 장현수의



페널티킥에 힘입어 1-0으로 이겼고, 태국과의 4강에서도 2-0 승리를 거뒀다. 기다리던 공격수 김신욱은 북한과의 경기 연장 후반 3분이 돼서야 경기장에 투입됐다. 김신욱은 혼신의 힘을 다해 후반 막판 공격에 힘을 보태며 한국의 우승을 견인했다.

선수들은 북한과의 결승에서 종료 휘슬이 울리자 이광종 감독에게 달려가 환호성을 질렀다. 이광종 감독은 선수들 한 명 한 명을 포옹해주며 기쁨을 나눴다. 위기 때마다 묵묵히 선수들을 이끌어왔던 이광종 감독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박지성 맨유 앰배서더 선정

(인천=뉴스1) 홍우람 기자 = 박지성이 유럽 축구 명문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 앰배서더로 선정돼 화제다.

맨유는 1일(한국시간) "박지성이 맨유의 앰배서더를 맡는 것으로 결정됐다. 구단과 1년 계약을 했다"며 박지성이 맨유 앰배서더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맨유 앰배서더는 전 세계를 돌며 맨유를 홍보하는 중요한 역할로, 구단이 공식으로 인정하는 레전드들이다. 그동안 맨유 앰배서더는 보비 찰튼을 비롯해 데니스 로, 브라이언 롱슨, 게리 네빌, 앤디 콜, 피터 슈마이켈 등 6명에 제한 허용됐다.

7번째로 앰배서더가 된 박지성은 첫 비유럽 국가 출신 선수다. 맨유가 박지

성을 레전드급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를 통해 아시아 시장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앰배서더로 선정된 박지성은 1년 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맨유 행사에 참가하며, 1년에 10여 차례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봉 개념으로는 1억500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성 맨유 앰배서더 선정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박지성 맨유 앰배서더, 축하해요 캡틴", "박지성 맨유 앰배서더, 연봉 대박이다", "박지성 맨유 앰배서더, 맨유서 박지성 가치를 알아줘서 좋다", "박지성 맨유 앰배서더 선정, 가슴이 찡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sport@news1.kr



NEWSTAR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개국 다국적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455,000
Sharon, MA
3 Beds, 2.5 Baths, 2000 sf.
Many updates
좋은 주거 환경, near Train Station
이현주 401-935-3397



\$799,900
Woburn, MA
5 Beds, 4 Baths, 4238 sf.
Terrific spacious home for Large family
Anna Jung 617-780-1675



\$729,900
Methuen, MA
4 Beds, 2.5 Baths, 3907 sf.
잘 관리된 넓고 아름다운 주택
Jay Lee 781-654-5281



\$650,000
Framingham, MA
4 Beds, 2.5 Baths, 2920 sf.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Near shopping on #9
Jay Lee 781-654-5281

단독주택 Single Family



\$499,900
Sharon, MA
3 Beds, 2 Baths, 2235sf.
Flexible floor plan
#1 Best Place to Live in US
이현주 401-935-3397



\$749,900
Westwood, MA
3 Beds, 2 Baths, 2475 sf.
Updated kitchen, windows, roof, hot water tank etc.
이현주 401-935-3397



\$465,000
Newton, MA
3 beds, 1 bath, 1180 sf.
Wonderful 3 bedroom single family on quiet side street
OT Kim 617-620-8242



\$495,000
Lexington, MA
3 Beds, 1 Bath, 1264 sf.
Great opportunity to develop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4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429,900
Belmont, MA
3 Beds, 1 Bath, 1245 sf.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nna Jung 617-780-1675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랜차이즈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국 최대의 부동산 그룹 / 2014년 10월 / 100만 달러 이상 매매 /
전국 100여개 도시 / 200여 개 에이전트 / 100여 개 도시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줄 송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Janice Lee
978-806-6023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Restaurant  \$799,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SAT Academy  \$50,000 Brookline, MA SAT Tutoring Academy Near many good schools Close to Route 9 and I-95 Julie H. Lee 401-935-3397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Nail Salon  \$280,000 Burlington, MA Near Burlington Mall 운영 잘 되는 네일 살롱 Anna Jung 617-780-1675
Drop off Store  \$50,000 Wakefield, MA Wakefield center에 위치한 drop off store Jin Choi 617-877-0387	Full Plant 세탁소  \$300,000 West Boylston, MA 고정 손님 많고 잘 운영되는 풀 플랜트 세탁소 낮은 운영비, 좋은 수입 Jason Jeon 617-642-5670	Drop off Store  \$60,000 Concord, MA Located in a busy shopping- mall close to Concord center Jin Choi 617-877-0387	Deli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Cafe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론트 요거트, 버블 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Deli  \$99,900 Chelsea, MA Amazing Deli with lottery, cigarette, ATM for sale Anna Jung 617-780-1675	Grocery  Ask agent for price info. Allston, MA 1100 sf.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Jewelry Business  \$74,990 Natick, MA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Full Plant Cleaner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Convenience Store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병원 건물 렌트 Worcester 3000 SF.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럴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비즈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울렛 물)

617.461.9270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0, No.39 October 3 2014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업소탐방 256

아밖적인태국의맛
브라운슈거카페(Brown Sugar Café)

Brown Sugar Café

1033 Commonwealth Avenue, Boston, MA
617-787-4242
http://www.brownsugarcafe.com/

선 가든 힐링센터

지압 침 기치료

617-953-498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테라스의 무성한 꽃과 '브라운슈거카페' 라고 쓰인 간판만 보고 커피숍이겠거니 지나칠 수 있는 이곳은 보스톤에서 꽤나 유명한 타이(Thai) 맛집이다.

브라운슈거카페(Brown Sugar Cafe)의 매니저 다니(Dani)는 식당 이름에 대해 유쾌하게 설명해주었다. "대부분의 태국식당은 간판에 '타이' 라는 말이 들어간다. 식당한 이름에서 벗어나고 외국인들에게 더욱 친근한 이름으로 어필하고 싶었다."

신기하게도 웬만한 타이 음식에는 황설탕이 반드시 들어간다. 다니 매니저는 태국에는 설탕시장이 크기 때문에 음식에 황설탕이 꼭 들어가며 이 식당도 황설탕을 사용한 비밀 레시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리 있는 이름이 아닐 수 없다.

태국 음식은 달고, 새콤하고, 맵고, 짜다. 이렇게 서로 다른 맛이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내는데 팟타이(Pad Thai)나 볶음밥 등은 외국인에게도 단연 인기가 좋다. 요리의 맵기는 손님이 조절 가능하며 기호에 따라 먹을 수 있다.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메뉴는 팟타이, 스투드비프 마사만(Stewed Beef Massaman), 가프라우치킨(Gaprow Chicken) 등이 있다. 팟타이도 바질

(Basil), 해물, 크리스피(Crispy) 팟타이 등 종류가 다양하다. 실제로 메뉴 판에 나와있는 음식 종류가 너무 많고 이름도 생소해서 종업원에게 "그냥 가장 맛있는 걸로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손님이 많다고 한다.

나탕(Natang)과 해물 팟타이(Seafood Pad Thai), 스투드비프 마사만이 테이블로 올라왔다.

나탕은 우리나라 식 쌀강정(Rice Crispy)에 따뜻한 코코넛밀크 소스가 함께 나오는 에피타이저다. 노란색을 띠는 소스는 굉장히 이색적인 맛을 내며 쌀강정과 같이 먹으니 그 맛이 또 새롭다. (Natang: \$9.50)

해물 팟타이는 새우, 관자, 오징어, 홍합이 풍성하게 들어간 볶음 국수로 새콤달콤한 요리다. 접시 한쪽으로 심심한 숙주가 푸짐하게 올라오며 당근 꽃으로 접시를 장식해 태국 분위기가 물씬 느껴진다. 향에 민감한 사람에게는 다른 메뉴를 추천하지만 이색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팟타이는 강력추천. (해물 팟타이: \$13.50)

스튜드비프 마사만은 카레와 곁들여 먹는 부드러운

운 소고기 요리다. 마사만은 태국어로 카레라는 뜻. 달콤하면서 약간 매콤한 카레소스가 소고기를 부드럽게 감싼다. 잘 익은 감자가 카레와 함께 곁들여 나오며 고소한 땅콩이 얹어져 나온다. (스튜드비프:



마사만 \$14.95)

태국 전통의 맛을 고수하는 브라운슈거카페는 2~3개월마다 스페셜 메뉴가 바뀐다. 저렴한 가격대는 아니지만 태국의 향과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식사를 하고 싶다면 이곳을 찾아와도 좋을 것.

dyoo9146@bostonkorea.com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예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최형락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978)869-2596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781.665.0004

145 Main st Melrose, Ma 02176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고등교육위원회	800-632-8075
고등교육정보센터	617-727-7785
공중위생국	800-442-1171
구세군	617-624-6000
국세청	617-536-7469
남서문의	800-829-1040
로간국제공항	617-976-6200
미아찾기	800-235-6426
백배지역	888-477-6721
보스턴공립학교	617-345-7958
보스턴수도	617-635-9000
보스턴시청	617-989-7000
보스턴총영사관	617-635-4500
사우스익	617-641-2830
사회보장국	617-345-7958
성폭행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벨라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 (Verizon)	617-555-1515
텍스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철학자협회	978-407-7554
국제철학자협회	603-89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주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617-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베링햄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802-734-2521
이화여고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고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대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가톨릭	
구세군 몰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몰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트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미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도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 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교회	978-869-2596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턴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777-1800
보스턴서부장로교회	978-578-6987
보스턴 성결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령교회	781-275-8233
보스턴 소망교회	781-396-1004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안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누리살림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아름다운교회	617-869-815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 어 벨렐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사온교회	413-549-9200
우주 교회	508-799-4488
웨스트프린더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존은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하버드 한인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시간판	617-470-1083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드 창문	617-999-9616
이블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드슨꽃집	781-894-1843

금융/투자	
인덱펀드(퓨영욱)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스파이낸스	617-799-6158

방송/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트링구장	617-782-0969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재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길 동물병원	978-658-5282

떡/진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킴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피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민헤어	508-734-0446
안디옥 교회	978-534-3394
타케이헤어디자인	617-8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혜헤어스타일	617-818-5596

물상 대여	
해피물상	617-583-233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650-6666
한국디지털위성	617-567-1346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광(0)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신부인과	
최의웅신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신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508-728-0832
인사정신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덕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신건강전문	978-688-6999
주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록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퍼럴리덴탈	617-471-6970
이영원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부스	617-871-1482
퀸지치과	617-471-2184
퍼스트치아시덴탈그룹	781-273-2233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정치과	781-894-1127
아이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현비철임플랜트	781-894-1470
전문치과	401-729-2711
기타	
메모리앨범병원(병리)	203-330-8080
국세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고영복(메트라이프)보험	978-646-3042
스타비(남술/김/류)생명	617-538-7851
이민항 보험	781-325-3406
조종은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치아시덴탈보험	617-782-8800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4
부동산	
가나안부동산(손득한)	617-290-0623
김중희부동산	978-866-7789
김현구부동산	617-694-0985
김현정부동산	617-388-8527
백영중부동산(뉴스타)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9/12
세탁소에서 프레스하실 분 구합니다.
드라이와 셔츠 각 1명 (N. Andover)
T. 978-273-6000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10/17
N [구인]
한식당주방장과 부주방장 구합니다
작은 동양 마켓안 한식당 주방장과 보
조 각 1명씩 더 모집니다
현재 주방장 보조 서빙 2명 디시워셔
하시는분 일하고 있음
식당테이블 17개 주 6일 근무, 주일은
쉽니다(인수가능)
Warner Robins GA I-75 EXIT 160근처
T. 615-714-8016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9/26
뉴튼 네일가게에서 일하실분 구함.
자격증 소지하신 분/취득하실 분 환영
T. 617-678-4780

Boston HTPC

데스크탑, 랩탑PC 수리
맥북, 아이맥 수리 및 윈도우설치
각종 데이터 복구 및 백업
인터넷 연결 및 공유기 설치
TEL 617-645-8885

8/22
Restaurant for Sale
Arlington Center on Massachusetts Ave.
T. 617-480-7090

10/17
N [구인]
시카고 지역에서 일하실 사이딩쿠루 구
합니다.
T. 847-307-1812

8/29
체스넛힐 레드망고
주방 보조 하실 분 구합니다.
T. 617-795-0376

8/29
렉싱턴 입주 베이비시터 /
가사도우미 구합니다.
T. 617-340-9624

Looking Korean interpreter

Looking for an experienced certified Korean interpreter. Certification should be from a qualified program, would prefer experience but will consider new certificate holder. Must be able to interpret in a variety of community setting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you can set your own hours and earn an above average hourly wage. Please send your resume to susan_kelliher@ccab.org or call 617-464-8122. Immediate openings.

9/5
챔스포드 세탁소에서
카운터 보실 분(파트타임) 구합니다.
T. 781-738-2627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12/19
N [매 매] 세탁소매매
건물+세탁소(33만불)
.9년간 같은 주인경영
.경쟁자 없음
.살기좋은 백인동네
.미독립기념일 1주간 문닫고 휴가
.은퇴관계로 매매
.Chatsworth, GA(Dalton근방)
T. 706-980-9510 Mr Kim

10/17
N [구인]
하와이에서 제일 안전한 맛사지 가게에
서 함께 일하실 아가씨를 구합니다
월수입 3만 - 5만 가능 신분 확실한
분
T. 1-808-675-1022

10/17
N [호텔직원구인]
사바나지역(Savannah, GA)
.룸서비스(여자)
.하우스맨(남자)
.오버나이트서비스맨(남자)
.게스트서비스맨(남자)
.전직원 숙박제공
.시간당 \$9.50부터
.주 40시간제
T. 678-689-7751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i.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al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5/1/14.

윤종신 '히든싱어3' 출연 예능인·프로듀서가 아닌 가수로 정면 승부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가수 윤종신이 JTBC '히든싱어3'에 출연한다.

한 방송 관계자는 10월 2일 오전 "윤종신 씨가 조만간 '히든싱어3' 녹화에 참여한다. 제작진이 윤종신 씨가 워낙 가수로서 좋은 노래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섭외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종신은 현재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 등 예능프로그램에서 맹활약 중이다. 또한 작곡가 겸 프로듀서로 후배 가수들을 양성하고 있다.

윤종신의 녹화일은 비밀에 부쳐졌지만,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종신과 더불어 김연우, 김예림, 뮤지, 조정치 등 소속 가수 일부가 함께 출연할 것으로 보인다. 윤종신의 '히든싱어3'는 10월 중 방송된다.

한편 '히든싱어3'는 모창 가수와 진짜 가수가 대결을 펼쳐 진짜 가수의 목소리를 찾는 형식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다.

윤종신 '히든싱어3' 출연 소식에 누리꾼들은 "윤종신, 오대박", "윤종신, 기대된다", "윤종신, 재밌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js753@news1.kr

김예림 묘한 음색 더해진 '마담뽕덕' MV '어반 그린' 공개

(서울=뉴스1스포츠) 이경남 기자 = '마담 뽕덕'이 명품 보이스와 만났다.

29일 영화 '마담 뽕덕' 제작진은 김예림의 '어반 그린(Urban Green)'을 배경으로 한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어반 그린'은 김예림의 정규 1집 'Goodbye 20'의 수록곡으로 '마담 뽕덕' 콜라보레이션 뮤직비디오로 재탄생됐다.

'어반 그린'은 편안한 음률로 마음을 녹이는 기타리스트 이상순의 작곡

과 김예림이 직접 작사에 참여, 심혈을 기울인 만큼 특별함을 더한다.

잔잔한 멜로디 라인과 김예림의 신비스러운 목소리는 8년 전 학규(정우성 분)와 덕이(이솜 분)의 첫 만남에서부터 서로에게 빠져들게 되는 순간, 그리고 8년 후의 모습까지 영화 속 장면들과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진한 여운을 남긴다.

특히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위험한 사랑과 욕망, 집착으로 물든 악녀 덕이가 처음 사랑에 눈뜨는 순간을 회상하는 듯한 모습은 힘을 빼고 담담하게 노래하는 김예림의 목소리와 더해져 감정을 더욱 극대화시킨다.

'마담 뽕덕'은 누구나 알고 있는 '심정전'을 각색한 영화로, 한 남자와 그를 사랑하는 여자 그리고 그의 딸 사이를 집요하게 휘감는 사랑과 욕망·집착을 그린 치정 멜로극을 그린 영화다. 다음 달 2일 개봉.



lee1220@news1.kr

김동률 6집 '동행' 최신 유행 따르지 않아도 좋다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기자 = 김동률 6집 동행이 화제다.

김동률은 1일 오전 0시 6집 앨범 '동행'을 발표했다. 동행의 타이틀곡 '그게 나야는 이날 멜론, 네이버뮤직, 벅스, 지니, 엠넷 등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차트 1위를 기록했다.

김동률은 6집 동행에 대해 "최신 유행을 따르지 않아도, 어려운 음악의 문법에 기대지 않아도 듣기 편한 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조그만 트랜지스터 라디오에서 들어도, 뽕뽕한 음향 시스템에서 들어도 같은 감정을 전달 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라며 앨범 준비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음을 밝혔다.

김동률은 또 "어디서 우연히 제 노래를 듣게 될 때 몇 분동안이라도 잠시 위로가 되고 힘이 돼 줄수 있는 그런 음악, 오롯이 오감을 집중해서 이어폰을 꽂고 감상하고 싶어지는,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전부가 될 수 있는 음악, 오랫동안 맘에 남아 자주 꺼내 듣고 싶은 음악, 추억들이 한껏 담겨질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처음 음악을 시작할 때에는 제가 더 발전하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장 한 장 앨범을 만들어 갈수록 그에 못지 않게 제 음악을 들어주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라며 음악에 대한 열정을 표했다.

김동률 6집 동행에 누리꾼들은 "김동률 6집 동행 기다린 보람이 있다", "김동률 6집 동행, 목소리 언제 들어도 좋다", "김동률 6집 동행, 이런 걸 기다렸다", "김동률 6집 동행, 극찬할 수밖에 없다" 등 반응을 보였다.

star@news1.kr



아이유 버전 '소격동' 화제 서태지 버전은 언제 공개될까?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서태지와 아이유의 콜라보레이션 '소격동'이 공개돼 화제다.

10월 2일 0시 서태지의 9집 정규 앨범 '콰이어트 나이트(Quiet Night)' 수록곡으로 아이유와 함께 작업해 화제를 모았던 '소격동'이 아이유 버전으로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전격 공개됐다.

'소격동'은 강한 전자음 비트가 반복되며 일렉트로닉한 사운드에 아이유 특유의 감성 보컬이 덧입혀지며 몽환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특히 아이유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일렉트로닉한 사운드와 아이유 특유의 맑은 음색이 어우러져 감탄을 자아낸다.

일명 '소격동 프로젝트' 로 불리고 있는 서태지와 아이유의 콜라보는 기존에 없었던 형태의 협업으로 가장자리에 따라 다르게 공개되는 두 버전의 음원과 두 버전의 뮤직비디오가 하나의 큰 그림으로 그려지며 스토리가 퍼즐처럼 완성되는 독특한 구조를 보이게 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공개된 '소격동'은 서태지가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맡았다. 노래는 서태지와 아이유가 각각 한 버전씩 맡아 녹음했으며, 아이유 버전에 이어 10월 10일 0시 서태지 버전의 '소격동'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발매될 예정이다.

한편 '소격동' 아이유 버전은 공개 직후 멜론, 지니, 엠넷, 유투뮤직, 소리바다, 벅스, 싸이월드 뮤직, 다음뮤직, 네이버뮤직 등 총 9개 차트 1위를 기록했다.

'소격동' 아이유 버전 공개에 누리꾼들은 "소격동, 오대박", "소격동, 서태지가 괜히 서태지가 아니구나", "소격동,

아이유 목소리 정말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js753@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4년 9월 22일 ~ 9월 28일

1위
KBS2 주말연속극
가족끼리 왜 이래
22.6%



2위 KBS1 일일연속극 고양이 있는 있다 19.9%



3위 KBS2 해피선데이 19.7%

- 4 KBS1 KBS9시뉴스 16.9%
- 5 KBS2 개그콘서트 16.4%
- 6 MBC 주말특별기획(마마) 15.6%
- 7 KBS2 일일드라마(빠꾸기둥지) 15.3%
- 8 SBS 정글의법칙(솔로몬) 14.4%
- 9 KBS2 아시안게임2014여기는인천축구 14.2%
- 10 KBS1 러브인아시아 14.1%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4.99에 볼 수 있는 안TV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 01 신촌을 못가 포스트맨
- 02 당신만이 박진연외 2명
- 03 독기 아이언
- 04 예뻐졌다 박보람
- 05 설렘주의 NS 윤지
- 06 틈 소유, 권순일
- 07 손대지마 에일리
- 08 공허해 WINNER
- 09 연결고리#합함 Bobby
- 10 I Swear 씨스타

숫자 퍼즐 (Sudoku)

6		3		7				
	1				2			
5	4			9				2
				6			5	3
				3	8	7		
2	3	6			4			
1				3			2	4
				2			7	
				5		3		9

10월 5일 - 10월 11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최선이 더 아름다운

● 운수: 최고보다는 최선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충분히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 금전: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돌아오는 이득의 차이가 클 것입니다. ● 애정: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겉모습만으로는 그것의 속내를 제대로 알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7, 9일 길일. 5, 11일 주의.

토끼띠 | 화창한 봄날 한 가운데 있는 것같이

● 운수: 세상에 나와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각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면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금전: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활동하는 범위가 넓을수록 따라주는 재물도 클 것입니다. ● 애정: 말 한마디로 사람을 화창한 봄날 한 가운데 있는 것같이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7, 10일 길일. 5, 8일 주의.

말띠 | 두뇌회전이 잘 되는

● 운수: 두뇌회전이 잘 되는 때입니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낸 덕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크게 남는 것이 있겠습니다.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 애정: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고마우면 고맙다는 표현을 그때그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 가까워집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6, 10일 길일. 8, 11일 주의.

닭띠 | 순간순간이 소중한

● 운수: 자신을 가장 위해주고 아껴줄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 금전: 때로는 너무 완벽하게 보이기보다는 뭔가 허술한 틈이 있어 보이는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득도 따질 것입니다. ● 애정: 살다보면 지금까지와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순간순간이 소중한 때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6, 9일 길일. 8, 11일 주의.

소띠 | 한 번 돌아볼 필요가

● 운수: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신체 에너지가 떨어지니 평소보다 먹는 것을 더 잘 챙겨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세요. ● 금전: 지금부터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당장은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애정: 자신이 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섭섭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5, 8일 길일. 6, 9일 주의.

용띠 |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 운수: 처분만 바라보고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답답하겠지만 지금은 기다려야 합니다. ● 금전: 욕심이 나더라도 자신의 형편을 넘는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애정: 현재 만나고 있는 연인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어야 할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5, 8일 길일. 6, 9일 주의.

양띠 |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

● 운수: 억지로나다 빠져있는 생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뭔가 몰두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 금전: 벌써부터 열매를 따려고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씨앗을 뿌려놓고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 애정: 한편으로는 누가 알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끝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7, 11일 길일. 6, 9일 주의.

개띠 | 조금만 고개를 숙인다면

● 운수: 눈에 보이는 성공스토리만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실패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금전: 자존심을 세운다고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만 고개를 숙인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니 기대하지 마세요. 상대는 내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0, 11일 길일. 5, 9일 주의.

범띠 |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 운수: 기쁜 일과 힘든 일이 교차되는 때이지만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 금전: 풍성한 시기이니 재물이 유리하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이익을 가져다주는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 애정: 사랑은 계절 같은 것입니다. 한 철이 지나가면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든지 결국에는 다시 오는 것처럼 사랑도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6, 11일 길일. 5, 7일 주의.

뱀띠 | 마음을 잘 헤아려주어야

● 운수: 병원에 가면 금방 치료할 수 있는데 혼자서 치료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나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알고 보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공짜를 좋아하다가 도리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애정: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어야 하겠습니다.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둘 사이에 균열이 조금씩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5, 9일 길일. 7, 10일 주의.

원숭이띠 | 기회가 있을 때에 잡아야

● 운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기회가 있을 때에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 금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전에 잃어 버렸던 물건을 찾게 되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나오거나 하는 등 뜻밖의 수확도 있겠습니다. ● 애정: 잘하면 잘한다고 인정해 주도록 하세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5, 8일 길일. 7, 10일 주의.

돼지띠 |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 운수: 의욕만 가지고 무계획적으로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 금전: 독불장군 식의 행동은 자신에게 하나도 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 애정: 구태여 상대를 자국해서 굶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지금은 참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8, 11일 길일. 7, 10일 주의.

강소라, 첫 란제리 패션 화보 공개 '여성스러운 무결점 몸매 돋보이네'

(서울=뉴스1)온라인팀 기자 = 배우 강소라의 생애 첫 란제리 패션 화보가 공개됐다.

강소라는 10월 2일 발간되는 '퍼스트룩 매거진'을 통해 이탈리아 프리미엄 브랜드 파라(parah)의 란제리 화보를 공개했다.

평소 발레로 몸매 관리를 해온 강소라는 파라(parah) 란제리의 고급스러우면서도 은은한 색감이 돋보이는 여성적인 느낌을 완벽하게 표현해 냈다.

특히 강소라는 퍼블레로, 슬립, 정장 재킷, 니트, 드레스 등으로 각각 란제리의 분위기를 돋우는 옷을 레이어드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강소라는 '퍼스트룩 매거진'을 통해 처음으로 언더웨어 패션 화보 촬영에 임했지만 첫 촬영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적극적인 포즈로 촬영에 임해 스태프들의 찬사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한편 강소라의 란제리 패션 화보는 '퍼스트룩 매거진' 10월호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강소라 란제리 화보를 접한 누리꾼들은 "강소라, 몸매 부럽다", "강소라, 운동 열심히 하는 듯", "강소라, 진짜 멋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js753@news1.kr



더 지니어스3 신아영 누구? 하버드대 출신 엄친딸

(서울=뉴스1스포츠)온라인뉴스팀 기자 = 더 지니어스3 신아영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아영은 지난 1일 밤 11시 방송된 tvN '더 지니어스3'에 출연해 강용석과 처음 만난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신아영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어와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4개국어를 구사하는 재원으로 현재 SBS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 중이다. 또 그는 대학시절 세계 5대 은행 중 하나인 스코틀랜드 왕립은행(Royal Bank of Scotland) 인턴을 수료한 바 있다.



star@news1.kr

제시카 공식입장 발표에도 혼전 "먼저 탈퇴한다고 한 건 왜 없지?"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기자 = 제시카 공식입장 발표에도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제시카는 1일 오전 지난 8월 론칭한 패션 브랜드 블랑(BLANC) 홍보 대행사 시너지 힐앤솔튼을 통해 "저는 지난 9월 29일 소속사로부터 소녀시대를 나가달라는 퇴출 통보를 받게 됐고 이와 관련해 너무나 당혹스럽고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으며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라고 시작되는 장문의 글로 자신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제시카는 "저는 그 동안 소녀시대 멤버의 일원으로서 제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업에 앞서 소녀시대 활동을 가장 우선시 해왔습니다. 그러나 팀을 위한 저의 노력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속사로부터 팀에서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라며 "저는 전부터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사업을 계획하면서 SM 소속사와 멤버들에게 사업 준비 단계부터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쳐서 사업에 관해 충분히 논의하고 이해를 구해왔습니다"고 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소속사, 멤버들의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론칭 불과 한 달 만인 9월 초에 멤버들은 돌연 입장을 바꾸고 회의를 소집했으며, 그 이후 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을 그만두든지, 소녀시대를 떠나든지 양자 택일 하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에 소속사로부터 허락도 받았으며, 그동안 소녀시대 활동을 소홀히 한 적이 없고, BLANC 론칭 초기 한 달에 걸쳐 체결된 관련사업 파트너와의 계약으로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사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라며 "저는 9월 16일 소속사 대표를 만나 위와 같은 저의 입장을 전하였고, 이 자리에서 소속사로부터 사업병행에 대한 허락을 재확인 받았습니"라고 주장했다.

제시카는 또 "그러나 저는 지난 9월 29일 소속사로부터 소녀시대를 나가달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다음날인 9월 30일 예정되었던 중국 심천 팬 미팅 행사에도 참가하지 못하게 됐고, 이후 모든 소녀시대 활동에서 제외됐습니"라며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열정과 애정을 쏟으며 그동안 15년 이상 함께한 동료 멤버들과 회사측에서 제가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소녀



시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에 너무나 크게 상처를 받았고 안타까운 심경을 감출 수 없습니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앞서 소녀시대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 봄 제시카가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사에 앞으로 한 장의 앨범활동을 끝으로 팀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라며 "제시카의 갑작스런 이야기에, 당사와 소녀시대 멤버들은 소녀시대를 위해 좋은 방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고민해 왔습니"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star@news1.kr

천지보살

운명
사주
궁합
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TV/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김씨의 뿌리(15)>

흉노 정벌의 공신 이광, 위청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중국 섬서성 함양 부근 무릉(한무제묘)에 배장(陪葬)되어있는 위청 묘 (섬서성 흥평현 남위향 도상촌)

한무제 치세 52년간에 40년은 매년 흉노와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

이런 난세에는 걸출한 영웅이 나타나게 되어있다. 여러 명의 장수들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세 사람이 있었으니 이들에 대한 기록이 사마천의 사기(史記)와 반고의 한서(漢書)에 기록되어 있다. 이광(李廣), 위청(衛靑), 곽거병(霍去病)이 바로 이들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 세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이 너무도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흉노를 물리치는 데는 도가 튼 사람들이었다. 곽거병의 용병술은 전광석화 같았고, 의표를 찌르는 기습이 많았다. 때로는 병법에는 어긋나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상승장군으로 한무제로부터 제일 큰 총애를 받았다.

곽거병은 태어났을 때부터 주위 사람들이 떠받들어 주어서 성격이 오만하고 행동에 거리가 바가 없었다. 그는 일반 병사들의 심정이나 고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

한무제가 수레에 음식을 가득 실어 보냈는데 그가 먹고 남으니깐 그냥 버려버렸다. 그때 그의 병사들은 굶주리고 있었다. 그에 반해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해온 위청은 아랫사람들은 돌볼 줄 알았고 사람됨이 어질었다. 사마천은 위청을 평하기를 “대장군은 사람됨이 어질고, 선하고 겸손하다.” 그러나 “온화하고 부드러움으로 천자에게 아첨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단점을 말했다.

위청의 용병은 충분히 준비하고 적의 허실을 관찰하다 공격하는 스타일로 실수가 적은 상승장군이었다. 곽거병의 화려한 승리 뒤에는 언제나 든든한 위청의 도움이 있었다.

세 사람의 장군 중 흉노족들이 제일 무서워한 장군은 비장군 이광이었다.

<이광(李廣)>

이광은 진시황 때 명장, 이신의 후손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활 쏘는 법을 전수해왔는데 이광은 그 중에서도 특출한 궁수였다. 한문제 14년(BC 166)에 흉노족이 대거 침입해 왔을 때 이광은 일반 병사의 신분으로 출정했는데 신기에 가까운 궁술로 가장 많은 적을 사살하여 장군의 직위를 받았다.

이광은 궁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용기와 기지를 겸비한 장군이었다. 흉노족들은 그가 온다는 소문만 듣고도 철군했기 때문에 한나라 황제들은 흉노가 쳐들어오면 의례 그를 출전시키었다.

한번은 이광이 100명의 기마병을 이끌고 3명의 흉노족을 추격하여 사살한 일이 있었다. 이때 갑자기 수 천명의 흉노

기마병이 나타나자 병사들이 도망가려 했지만 이광은 “지금 우리 본대는 몇 십리나 떨어져 있는데 지금 도망친다면 저들이 추격해서 모두 죽게 된다. 만약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저들은 우리가 유인하려는 것으로 알고 함부로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부러 안장을 풀고 말에서 내려 휴식을 취하였다.

예상대로 수 천의 흉노 기병들은 100명의 한나라 기병들을 공격하지 못하다가 밤중에 퇴각하였다. 이처럼 이광은 용기 있고 기지가 대단한 장군이었다. 군사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였으니 그의 병사들은 이광을 추앙해 전투에 임해서는 사력을 다하였다. 흉노와 70여번을 싸워 술한 전공을 세웠지만 위청이나 곽거병처럼 대승을 거두지 못하였고 다른 장군들처럼 제후의 반열에도 오르지 못하였다.

60세가 되던 해에 위청, 곽거병과 함께 흉노를 치게 되었는데 이광의 군대가 작전 중에 길을 잃게 되었다. 전쟁에서 길을 잃는 것은 군법에 따르면 중죄에 해당되었다.

위청은 이광을 불러 죄를 묻게 되었다. 상관으로서 응당 취해야 할 절차를 취한 것이다. 이광은 자신의 죄과에 대한 심문과 질책을 당하고 싶지 않아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흉노, 한, 대월지 지도. 위청 장군 진격로

<대장군 위청(衛靑)>

위청은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후일에 대장군이 되어 흉노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한나라 중흥의 일등 공신이 되었다.

인생의 황금기에 한무제로부터 버림받고 실의 속에 생을 마감한 다음에는 온 일가가 멸문지화를 당하였다.

위청의 아버지 정계(鄭季)는 미천한 출신으로 한무제의 때 부인 평양후(平陽侯) 조수의 집에서 급사로 일했다. 그 집의 하녀 위온(衛媼)과 사통하여 청(靑)을 낳았다. 위청을 낳기 전에 위온은 이미 위유, 위자부라는 두 딸과 위보, 위광이라는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어미의 성을 따르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신원이 확실치 않은 듯하다. 위청의 이름도 사실은 정청(鄭靑)이 맞는 이름이었다.

사생아,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난 위청은 어린 시절에 생부 정계에게 돌아갔는데 위청이 하는 일은 하루 종일 양(羊) 치

는 일을 하였다.

생부의 배다른 형제들은 그를 종으로 부리고 형제 대우를 하지 않았다.

한번은 우연히 감천궁(甘泉宮) 감옥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죄수 중 한 명이 위청을 한눈에 보고 “이 아이는 귀인이다. 후에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자 위청은 “남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매질과 욕설을 안 당하면 다행인데 어찌 벼슬 자리를 바라겠습니까?” 라며 겸양하였다.

위청은 나이가 들자 다시 평양후 집으로 가서 평양공주의 말뭍이꾼이 되었다.

당시 한무제와 황후 진아교(陳阿嬌) 사이에는 소생이 없었다. 그래서 한무제의 어머니 왕부인과 누이 평양공주는 계속 다른 여자들을 소개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진아교는 나름대로 질투심만 커져서 한무제와의 관계도 소원해지게 되었다.

한무제는 심심하면 평양공주 집에 들렀는데 마침 노래 부르는 가기 위자부(衛子夫)와 눈이 맞아 아들을 낳게 되었다. 위자부는 위청의 동모이부(同母異父) 누이였다. 위자부가 황자를 낳고 궁궐에 들게 되자 덩달아서 위청도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다.

위자부가 낳은 황자 유거는 천성이 어질고 학문에 정진하여 후일에 태자가 되지만 강충이라는 간신이 한무제와 황태자 유거를 이간질하여 유거는 젊은 나이에 한무제로부터 죽음을 당하게 되어 위황후는 폐위되고 위씨 일가는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다.

BC129년 위청, 공손오, 공손하, 이광이 각각 1만명을 거느리고 흉노를 쳐들어갔는데 예상을 뒤엎고 기대도 안 했던 위청만이 승전하고, 상승장군 이광은 포로로 잡혔다가 간신히 도망쳐 나왔다. 위청의 승리로 한나라 군사들은 흉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2년 후에 흉노가 요서 지방을 침공했을 때 위청은 운중 고궐, 농서까지 진격해서 흉노의 백양왕과 누번왕을 물리치고 이곳에 삭방군(朔方郡)을 설치하였다.

BC130년부터 BC119년까지 10여년동안 위청은 흉노를 7차례나 원정하여 항상 승리하고 큰 공을 세워 대장군이 되었다. 당시에 한무제의 누이 평양공주가 평양후 조수와 이혼하고 홀로 되어 재혼 상대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주위에서 대장군 위청을 천거하자 평양공주가 역색해 하면서 “예전에 자신의 말뭍이꾼이었는데 어찌 낭군이 될 수 있겠는가?” 하자 “지금 한나라에는 황제를 빼고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다”고 하며 재차 권유하자 평양공주가 납득하고 위청의 부인이 되었다. 예전의 천민으로 자신의 말뭍이꾼이었지만 이제는 한 이불을 덮고 자게 되었으니 사람팔자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BC119년에 한무제는 위청과 곽거병에게 각각 5만명의 군사를 주어 흉노선우를 공격하게 하였다. 위청이 흉노 선우를 대패시켰지만 선우는 가까스로 탈출하였다. 그래서 위청은 대승을 하고도 전공에서 삭제되고 대장군의 지위도 한무제의 처남 이광리에게 물려주었다. 이때 위청의 누이 위황후는 황제의 총애를 잃고 있었다.

REFRIGERATOR MANUFACTURER
Turbo air

직원 모집

세계적 상업용 냉장고 생산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터보에어 그룹에서
성실한 서비스 테크니션을 찾고 있습니다.

냉장고 수리 경력자나 전기 기능사를 우대하며
“**관련분야의 관심과 재능있는 분**”은 3개월 기술 교육 후
현장에 배치합니다. 기술을 습득하시면 어떤 불황에도 걱정없이
안정적인 미국생활이 가능한 직종입니다.

근무지역 : Boston, MA / Pittsburgh, PA / Denver, CO / Orlando, FL

특전 : 건강보험 (Medical, Dental, Vision), 보너스, 유급휴가, 이사비용 지급, 관련분야 공대 졸업자 영주권 신청가 .

연락처 : E-mail. kyle@turboairinc.com / Phone. 310-900-1007

Turbo Air Group

Turbo Air, inc.

Texaking, Corp.

German Knife, Corp.

Premiere, Corp.

Turbo Air Cond., Corp.

Sungwoo International, Corp.

Turbo China, inc.

BFC Investment LLC.

Turbo Charitable Foundation

Oakland



Hawaii



Seattle



Houston



World Headquarters - Long Beach, California

Dallas



Chicago



Atlanta



Miami



Cincinnati



New Jersey



Pittsburgh



Kwang-Ju, Korea Plant



Texas, USA Plant



Qingdao, China Plant

www.turboairinc.com
800-627-0032

신영의 **세상 스케치**

467회

축복의 노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은 해산의 고통을 이기고 아이를 낳아 가슴에 안은 엄마의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순백의 가장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은 누가 뭐라해도 결혼식 날의 신부일 게다. 아직 우리 집 아이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하던 공부를 더 하고 있으니 결혼을 할 나이는 아닌 듯싶다. 가끔 아는 지인들 자녀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면 따님이나 며느님 되는 자녀들을 눈여겨보게 된다. 그것은 아직 내게 닥치지 않았지만, 슬슬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마음에서 일게다. 이처럼 결혼은 참으로 귀한 날이며 모든 이들 속에서 축복을 받는 날임이 틀림없다.

옛그제(09/28/2014)는 한국에 있는 친한 친구의 딸이 결혼식을 올렸다. 멀리 있어 찾아가 축하를 해줄 수는 없어도 결혼식 날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났으니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다. 한국이 미국보다 만나질 빠른 시차가 있으니 친구의 딸아이가 결혼식을 올리는 시간에 나는 가을 산을 오르고 있었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울긋불긋 온 산천이 물든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호흡하며 산을 오르고 있었다. 산을 오르

는 내내 한국에 있는 친구와 친구의 딸 그리고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 감사했던 시간이었다.

축복의 노래 (축시 - K의 결혼을 축하하며...)

오늘은 너의 날
하늘의 푸른 기운 내리고
땅의 축축한 기운 올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의 꿈틀거림
하늘과 땅 사이에 흐르는
그들의 간절한 축복의 노래
너와 인연으로 이어진
또 하나의 너의 분신이 될 짝
너희 둘을 위해 축복 송이
온 누리에 울려 퍼지는 날
하늘도 축복하고
땅도 노래하는
귀하고 복된 날

오늘은 너희 둘의 날
또 하나의 분신으로 남아
네 곁에 영원히 함께할 인연
영원토록 함께 할 너희 둘
오늘은 특별한 선물의 날
너희 둘을 위해 축복 송이
온 누리에 울려 퍼지는 날
하늘도 축복하고
땅도 노래하는
귀하고 복된 날
너희 둘을 위해 축복의 노래
온 누리에 울려 퍼지는 날
오늘은 너희 둘의 날

이른 아침 산을 오르며 언제나처럼 힘든 오름길에서 삶을 잠시 떠올리며 인생을 생각했다. 어찌 이렇게 산은 우리네 삶의 길과 인

생의 길과 비슷한지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하게 기도 하고 신비스럽기까지 했다. 인정사정 없이 내리쬐는 가을 피약별 아래 나 자신의 보폭만큼 한 발씩 발걸음을 옮겨 가고 가쁜 호흡을 달래가며 그렇게 올랐다. 이렇듯 산 정상에 향해 한참을 오르다 보면 산 아래의 것들이 점점 멀어지고 작게 보인다. 그때 쬐이면 깊은 호흡으로 숨을 잠시 갖고 이제는 제대로 올라봐야겠다고 마음을 다져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네 삶도 우리네 인생도 이렇지 않던가.

내가 선택해 오르는 산길 앞에 그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나. 산을 오르는 내내 정신을 놓지 않고 앞을 보며 오르게 된다. 그렇게 버거운 산길을 오르며 자연을 만나고 오감의 터치를 받으며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다. 오르는 동안 발걸음에 느껴지는 땅의 감촉과 흙내음 그리고 깊은 숲속에서 푸르디 푸른 솔내음과 풀내음 향긋한 꽃내음 그 냄새에 취하게 되어 마음은 하늘을 난다. 이렇듯 산을 오르는 내내 자연을 만나며 창조주에 대한 감사와 노래가 절로 나오고 그의 피조물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결혼이라는 것이 살아보면 알지만, 꿈이 아닌 현실이기에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이지

않던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 둘이 만나 한 가정을 이뤄 한지붕 아래에서 산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그렇지만 서로 사랑해 시작하는 두 아이에게 어찌 어려운 얘기만 들려줄 수 있겠으며 또한 어찌 행복한 얘기만 들려줄 수 있을까. 그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라는 마음의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그만큼 결혼은 생각처럼 쉽지 않은 길임은 틀림없기에 산을 오르는 것처럼 버겁게 오르다 평지 길을 만나면 서로 마주 보고 숨을 잠시 돌리며 또다시 힘든 오름길을 함께 오르는 길은 아닐까 싶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한 발을 내딛는 두 아이에게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함께 호흡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들과 맞닿 만나고 느끼고 누리며 살기를 간절한 마음의 기도와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었다. 행복은 언제나 너희 둘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서로 느끼며 살라고 말이다. 그렇게 둘이서 예쁘게 살아가며 아이도 낳고 기르는 모습을 곁에서 바라보는 부모와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은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다. 가을 하늘만큼이나 푸르게 가을 들뜰만큼이나 넉넉하고 풍성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It's none of my business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보스톤에 처음 이사 왔을 적이다. 보스톤 다운타운에 볼 일이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 했다. 먼저 탄 승객이 보였다. 승관대로 눈인사를 보태 '하이' 라고 인사하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섰다. 돌아온 대답은 없었다. 무반응인게다.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의 눈길은 올라가는 층수 붉은 디지털 숫자만을 세고 있는듯 했던 거다. 나만 싱거운 사람 되었다.

어색했다. 몇씩음이 그에게서 풍기는 진한 로션 냄새에 얽혀졌다. 슬쩍 그의 뒷통수만 쳐다 봤고, 뒷모습은 완강해 보였다. 역시 들던 보스톤니안의 모습이었던 거다. 엘리베이터 안 공기는 팽창하기 시작했고, 실온室溫은 올라가고 있었다. 숨을 쉴 수 없었고, 두통이 밀려왔다. 그러니 그가 먼저 내리지만

을 간절히 바라는바, 그게 내가 살아남아 엘리베이터 여행을 무사히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 여겼으니 말이다. 짧은 이 삼분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의 숨소리와 뒷모습에서 그는 내 눈길을 의식하는 것 처럼 보였던 거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애써 내 눈길을 무시하고 있었다. 끝내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먼저 내렸다. 하지만 이제는 숨쉴 수 있어 안도 했다. 막혔던 내 숨구멍이 뚫렸다는 말이다. 후우하고 참았던 숨을 내쉬고 회생했던 거다. 아스피린 먹은 것처럼 두통도 사라졌다.

나중에 들었다. 애써 무관심한 척 하는건 보스톤니안들의 일반적인 행동양태라 했다. 그렇다고 이 북동부 양반들 남의 일에 아주

무관심한 건 아니란다. 볼 것 다보고, 들을 것 다 들으면서도 남의 일에 관심 없는 척이란다. 무관심한 척 하는 것과 무간섭이 오히려 배려라는 걸 믿고 있다는 말이다. 이걸 아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오래 전이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회사를 옮겼다. 몇 달 후 그의 방문을 받았다. 그에게 인사치레 질문을 던졌다. 새 일터가 어떠냐? 은근히 새 일터가 못하다는 대답을 기다렸다. 허걱, 대답이 명쾌하다. '다르다.' 우리 회사와 현재 일터는 우열을 가릴 수 없고, 호불호가 없이 그저 다르단다. 오랜만에 들던 명답이다. 그 동안 난 그저 선후와 우열만을 생각했던 모양이다. 좌우에 다름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한국에서 싸움을 말리던 두 사람이 오히려

경찰서에 끌려갔단다. 집단구타 당하는 걸 목격하고 참지 못했던 거다. 제 일도 아니면서 말이다. 의협심이 뭔지. 오지람이 넓은 건지. 그래도 우리네 정서는 그냥 지나치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 인게다. 그건 다르다. 이걸 B급정서라 하고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면 너무 식막하지 않은가? 싸움에 영검결에 끼어들었던 두 사람은 여전히 칭찬받아 마땅하다. 영어에는 'It's none of my business' 란 말이 흔히 쓰인다. 문화의 차이인가. 정서의 차이인가. 보스톤과 서울은 오천마일이상 떨어져 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베드로 전 4:15)

‘나’ 보다 ‘우리’가 되는
We are Bene Family

가맹점주님과 하나가 되어 꿈을 키워가겠습니다



카페베네 본사 인테리어고문
 나장수 디자이너

브라질 이파네마 커피 농장
 산 페드로 씨

뉴저지 카페베네
 데이빗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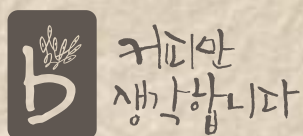
맨하탄 카페베네
 트레이시 씨

일본 하네다 공항 카페베네
 바리스타 켄지 야마다 씨

카페베네의 Family가 되실
미주 카페베네, 가맹대표님을 모십니다

*Plan Caffebene
 카페베네 패밀리가 함께하다

뉴욕에 1호점을 낸 이후 계속해서 그 성장을 멈추지 않는 카페베네- 작은 커피전문점의 꿈을 넘어 세계 글로벌기업을 꿈꾸는 카페베네의 가맹대표님이 되어보세요. ‘나’보다는 ‘우리’ 를 먼저 생각하는 카페베네가 점주님들의 성공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카페베네 가맹대표님 모집
 미국 내에서만 현재 100여 개 이상의 매장이 오픈 준비중입니다

1.888.963.9672
www.caffebeneusa.com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50 정조와 홍국영洪國榮(3)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1776년,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해, 한반도에 자리한 조선도 문무를 부흥시킨 현명한 군주 정조가 3월에 즉위를 하였다. 정조와 함께 정조의 시대를 연 당대의 풍운아 홍국영, 그는 미남이었고 비상한 재능과 함께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담력도 소유했으며, 눈앞에 닥친 위기를 지혜롭게 모면하는 기지척도 있었다. 때로는 지나친 자신감이 교만과 독단으로 비춰지기도 하였지만 그의 지략과 통솔력은 국왕을 보좌하여 한 시대를 여는데 손색이 없었다. 원래의 성격이 잔인하고 보복성이 있어서 정적은 많았지만 정조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3,4년간 그의 권력은 왕권에 버금하였다. 홍국영은 도승지(현재의 비서실장 격)가 되어서 왕명을 출납하면서 정조의 신변을 직접 보호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숙위소宿衛所를 설치하였다. 숙위소는 1777년(정조1년)에 왕을 호위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청이다. 대전大殿을 숙위하는 금군禁軍들의 신변숙위실수를 염려하여 설치하였으며 홍국영이 숙위대장이 되어 꿰내는 물론 권외의 3영(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의 입직, 순라 등의 교대 및 모든 군사활동을 숙위소로 서면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이 숙위소에서 모든 명령 또한 하달되었다. 숙위소는 호위와 순검의 모든 부서의 총상환본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홍국영은 결국 국문무의 전권을 휘둘렀고 그가 누린 막강한 권력은 만조백관들을 맹종케 했다. 모든 공무와 왕명을 총괄했던 이 숙위소도 1780년 홍국영이 대역죄로 폐출될 때 함께 혁파되었다.

승승장구 할 것만 같았던 홍국영의 세도도 달이 차면 기우는 것처럼 기반이 허물어 지고 있었다. 자신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후궁으로 들인 누이가 오히려 그의 정치 생명을 단축시켰다. 그의 누이동생은 정조와 가례를 올리지 1년도 되지 않아 갑자기 사망하였다. 그리고 홍국영은 누이동생 원빈이 독살되었다고 의심하였으며 그 배후가 정비 효의왕후라고 믿었다. 동시에 외척의 발로를 염려했던 정조는 원빈 사망 후 홍국영을 은퇴시켰다.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보아온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의 외척인 경주 김씨와 자신의 외가인 풍산 홍씨들의 발로가 정국을 혼란하게 몰면서 그 권력의 암투 속에서 생부 사도세자가 비명에 희생했기에 그의 통치 원칙은 외척이 정치에 간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홍국영과 새 시대를 열었지만 홍국영 역시 외척이 되면서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단 격이 되어가니 그를 일찍히 은퇴시켜

서 '봉조하'에 임명했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은 왕위 계승에 개입하여 간섭했기 때문이다. 그의 누이동생은 '원빈'으로 봉해졌는데 이 '원빈'은 '옴원'으로 왕통의 근본으로만 쓰였기에 후궁이 쓸 수가 없는데도 홍국영의 입김으로 택해진 작호이다. 그리고 홍국영은 원빈이 죽고, 효의왕후가 후사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도세자의 서자 은언군의 아들 상계군을 원빈의 양자로 삼아 완풍군完豐君으로 봉하였다. 여기서 완은 '전주 이씨'를 뜻하고, 풍은 '풍산 홍씨'를 의미한다. 왕실에서는 어머니쪽 관향을 작호로 쓰지 않았는데 이것 또한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홍국영의 의중에는 완풍군을 정조의 후계자로 심중에 두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벽제역 괴서사건'과 젊은 홍국영이 자신의 지위와 정조의 신임을 믿고 원로 대신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면서 절대 권력을 유지하려다가 반대파는 물론이거니와 동료들마저도 그의 인간적인 도덕성에 모멸감을 느끼면서 그를 떠나게 되었다.

드디어 1779년(정조3년) 9월 26일, 정조와 홍국영이 7년 전 처음 만난 날(영조 48년, 1772년), 홍국영은 정조 앞에 무릎을 꿇고 "신이 한 번 대궐문을 나가서 다시 세상에 뜻을 둔다면...중략... 하늘의 신神이 반드시 죄를 줄 것

입니다" 라는 내용의 사직상소를 올렸다. 그러자 정조는 즉석에서 사직을 받아드리면서 "이전과 이후 천년에 걸쳐 이와 같은 군주와 신하의 만남이 언제 있었고 언제 또 다시 있을 수 있겠는가, 옛날부터 흑발의 재상은 있었지만 흑발의 봉조하는 없었는데, 드디어 흑발의 봉조하도 있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봉조하에 봉했다. 그는 모든 직책에서는 사직을 했지만 '흑두봉조하'로서 궁궐을 출입하고, 그의 은퇴와 동시에 백부 홍낙순이 정승에 임명되면서 나름의 세력을 유지하면서 대우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홍국영의 당여들이 서명음을 탄핵하려다가 역풍을 맞고 홍낙순마저 1780년 1월에 축출 당하고 나자 김종수의 탄핵상소를 시작으로 홍국영에 대한 탄핵이 빗발쳤다(한중록에서는 이 김종수의 상소가 정조의 뜻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홍국영은 모든 재산을 몰수 당하고 방출되어 강원도 횡성을 거쳐 강릉으로 가서 산과 바다를 헤메면서 통곡하다가 이듬 해 1781년 34세의 나이로 죽었다. 정조가 그를 방출한 이유는 그가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 갈 정류과 지혜가 없는 인물이었다고 구세대의 인물처럼 독점적이고 특권적 권력을 누리려고만 했으며 도덕성마저 파탄나면서 정조를 실망시켰기 때문이라 본다.



독자기고
김철

Sleepy Hollow의 세 현자(賢者) (1)

금년 초에 소로의 흔적을 찾아 월든 호수를 다녀 왔었다. 한겨울이었던 까닭에 당연히 호숫물은 꽁꽁 얼어 있었고 찾는 이도 거의 없었을뿐더러 바람까지 했다. 서울에서 꿀맛같은 석달간의 특별휴가를 보내고 보스톤으로 다시 돌아오자마자 무엇보다 먼저 월든 호수를 다시 찾았다. 짙은 녹음과 맑은 호숫물이 잘 어우러져서 유명한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호수 일대는 주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관리와 보존이 잘 되고 있었다. 호수가 비치에는 여름의 끝물을 즐기는 듯 물놀이하는 아이들도 보였고 일광욕을 즐기면서 독서하는 어른들도 꽤 눈에 띄었다.

날씨도 좋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소로의 더 많은 흔적을 알아 보기 위해서 콩코드 박물관을 찾았다. 소로에 관한 기록과 유품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이미 150여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난 사람이지만 그의 체취가 어렴풋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박물관 전시실 한편에 소로의 초상화 옆에 에머슨과 호손의 초상화가 함께 걸려 있는 게 아닌가? 이 세 사람이 모두 콩코드 출신이란다. 기록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니 에머슨이 1803년생, 호손은 1804년생, 그리고 소로가 1817년생이란다. 이들이야말로 미국 문학과 사상사에서 원조로 존경받고 있는 인물들이고, 이들이 동시대에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교류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다.

박물관을 나와 십오분쯤 걸어서 소로가 잠들어 있다는 Sleepy Hollow 공동묘지로 향했

다. 소로의 무덤은 Authors 'Ridge 구역에 있었다. 여기서 또 한번 놀란 것은 이 세 사람의 무덤이 불과 5미터에서 10미터 거리에 이웃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 사람의 묘비 앞에는 하나같이 만년필 등 필기도구와 손으로 직접 쓴 메모 형식의 짧은 편지가 놓여 있었다. 위대한 철학자와 문호들을 비록 사후에라도 여기서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행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학과 철학에 대하여는 비교적 과묵한 탓에 이 세 사람에게 대하여는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점에서 조금은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을 통해서 세 사람에게 대하여 살펴보기로 했다.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은 미국 철학의 아버지이며 미국 문학의 창시자라 불릴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다. 보스턴에서 태어나서 하버드에서 신학을 전공한 그는 1834년부터 이곳 콩코드에서 생활하면서 수많은 작품을 썼다고 한다. 그는 1836년 이곳에서 초월주의클럽(Transcendental Club)을 결성하여 초월주의 사상을 공유하는 지식인들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주도하였는데 호손과 소로도 이 모임의 일원이었다고 한다. 선형주의 또는 초월주의라고도 번역되는 '초월주의'는 19세기 중엽 에머슨이 주동이 된 대화의 모임 '초월주의 클럽'에서 연유한 말로, '경험적', '현상적'이란 말과 대립되는 '관념적', '초월적' 우주관에 따른 주의, 주장을 의미한다. 19세기 낭만시대의 시인과 철인들 대부분은 초월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신, 영혼, 보편정

신 들 초월적 실체의 절대적 권능을 믿었기 때문에 자연은 아름답고, 우주 질서는 조화로우며, 인간은 완전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에머슨이 남긴 명언과 시를 자주 인용하는 편인데, 그중 에머슨의 일기에 나오는 "인생은 하나의 실험이다. 실험이 많아질수록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이 된다" 라는 글귀가 많이 사랑받고 있으며, 특히 '성공(Success)' 이라는 시가 널리 알려져 있다.

-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 건강한 아이를 낳는
- 한 뼤의 정원을 가꾸는
- 사회환경을 개선하던
-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당시 에머슨의 인기는 대단하여 에머슨이 거주하는 콩코드로 많은 지식인들이 모여들었다. 콩코드라는 작은 타운이 마치 그리스의 아테네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였다고 한다. 에머슨의 강연에 매료된 콩코드의 한 초월주의자는 에머슨의 말을 듣는 것은 '그네를 타

고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비유했다. 에머슨은 힌두교와 불교를 포함한 동양의 철학과 종교도 두루 섭렵하였다고 한다. 그가 쓴 책 중 '세상의 중심에 너 홀로 서라(Self Reliance)' 는 링컨과 오바마가 극찬하였으며 국내에서도 번역서가 출간되어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흑시 스타니파터라는 불교 초기 경전에 나오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귀절에서 영감을 얻은 건 아닌지 모르겠다.

에머슨보다 한 해 뒤 세일럼(Salem)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호손(Nathaniel Hawthorne)은 1842년 결혼하면서 콩코드로 이사 왔다. 여기서 초월주의자 모임에 합류하게 되고 에머슨과 소로 등과 교류하게 된다. 1846년 콩코드를 떠나 고향인 세일럼으로 돌아온 후 창작작업에 폭 빠지게 되고 1850년에 불후의 명작 주홍글씨(Scarlet Letter)를 내놓는다. 1853년에는 친구이었던 14대 대통령 피어스(Franklin Pierce)의 당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리버풀 영사직을 맡아서 4년간 영국 생활을 하게 된다. 영사직을 마친 후에는 가족과 함께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여행한 후 1860년에 다시 콩코드로 돌아오게 된다. 호손을 광의의 초월주의자 범주에 넣는 경우도 있으나 에머슨 중심의 관념주의 사상에 더하여 현실적 과제에 대한 고민과 비평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에머슨 사상체계와는 차별화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고국의 품에서 당신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유방·갑상선센터**
유방암수술, 재건, 성형
- **암통합케어센터**
원스텝 진단에서 치료까지
- **자궁근종센터**
수술없이 자궁근종 치료
- **심혈관·뇌졸중센터**
심근경색, 뇌졸중, 24시간 진료
- **척추·관절센터**
무릎, 어깨, 허리, 비수술 통증치료
- **내시경센터**
위암, 대장암, 내시경 치료



617-583-2993
www.newyjh.com

고국방문 건강검진

VIP 입원 종합검진 남: 200만원 / 여: 210만원
 입원 종합검진 남: ~~80만원~~ 60만 / 여: ~~85만원~~ 70만원
 당일 종합검진 남: ~~55만원~~ 45만 / 여: ~~65만원~~ 55만원

진료과목

소화기병센터, 자궁근종센터, 건강증진센터, 인공신장센터, 인터벤션센터, 영상의학센터
 정신건강의학센터, 유방·갑상선센터, 척추·관절센터, 암통합케어센터, 심혈관·뇌졸중센터
 이비인후과·비뇨기과, 재활치료센터, 응급의학센터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성(性)'이란 마음이 나오는 곳 (올바른 성교육 IV, 사춘기 남아 13-18세)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문자가 발명된 후 가장 많이 쓰여졌고 계속해서 가장 많이 쓰여질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 이야기이다. 자신의 성을 인지하는 사춘기의 순간부터 테스토스테론이 융솟음쳐 올라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사랑에 빠진 사람과 미친 사람의 뇌는 모두 펄펄 끓어 오른다' 라고 말할지언정 "한 순간이라도 좋다!" 며 이런 '맹목적인 연애' 를 열망할 지 모르는 것이다.

한 순간의 불꽃처럼 타오르는 꿈같은 사랑 속의 성(性) 이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

남겨지는 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으로 '남성'을 인지하게 되는 사춘기의 남자는 처음으로 '성(性)'을 느끼며, 야릇하고 짜릿한 마음에 빠질 것이다. '에로스의 사랑' 을 알게 되는 첫 발걸음이다. 하지만 에로스적인 사랑이 테스토스테론에 집중되어 '성(性)'관계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안타깝지만, 성인이 되어도 '사랑' 이라는 개념이 '사춘기' 시절에 '고착' 되기 쉽고, 성숙한 사랑을 하는 과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성(性)' 충동은 쾌락에 집중되어 있고 공격적이다. 생리적으로 '정복욕' 과 관련이 있다. 커피테라피 중 부인을 어떻게 만났냐는 질문에 "너무도도해서 꺾어보고 싶었다" 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는 미스터 박이 있었다. 그가 갖고 있는 '한국 문화적, 남성 우월주의' 의 '추상화된 남성상' 은 남성중심 '성(性)문화' 가 더 남자다운 것이라 믿게 했다. 하지만 이 생각은 그의 '결혼생활' 과 '성생활' 에 장애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신부감으로서 최고의 스펙을 가졌던 똑똑한 부인과 결혼에 성공하며 그는 충만한 자기만족감에 젖어 살아왔다. 신뢰질에 각인된 남성 우월주의는 성생활에서 자신이 부인을 '성적대상화'로 보고 있는지 모르게 했다. 오히려 자신의 정복욕과

소유욕의 쾌감을 주는 이 새디스틱한 '성(性)' 생활을 '누리는 '성(性)' 이라고 착각하며 살아 왔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춘기적 사랑법에 고착되어진 '누리는 '성(性)'' 입을 모른 채... 그 결과, 함께 '누리는 성(性)' 이 아닌 혼자 '누리는 성(性)'을 견디지 못한 부인이 이혼을 요구했다.

'성(性)'은 마음 심(心)과 몸 생(生)자가 합쳐져 있다. 따라서 성(性)은 마음과 몸, 바꿔 말하면 인간 자체를 의미하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마음이 나오는 곳'이란 뜻이다(전은애 2014). 마음이 나오는 성은 한 순간에 끝나는 성이 아니기에 오래도록 누릴 수 있는 '올바른 성' 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나오는 성' 에 대해 사춘기의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부모님은 '남녀간의 성애(性愛)로서의 사랑' 이 갖는 기본적 성격을 알아두고 아이들과 대화를 하며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음양이론과 함께 한 오행설(五行說)이다. 오행 이론에 따르면 양(남자)의 대표적 상징물이 불(火)이고 음(여자)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물(水)이다. 남녀의 사랑, 특히 성적 결합을 생각해볼 때 남자는 불, 여자는 물이므로 남녀의 결합은 '물과 불의 만남'으로 풀이될 수 있다. 물과 불은 사실상 상극이다. "이것이 남녀의 원초적인 비극" 이라고 마 광수 교수는 말한다(2013).

불은 물을 끓일 수 있지만 영원히 타오를 수 없다. 물은 영원히 흐르거나 머무를 수 있다. 물은 불도 꺼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물을 끓이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다. 물은 서서히 끓고 서서히 식는다. 불은 금방 타오르고 금방 죽는다. 이런 원리로, 여자의 마음은 서서히 움직이지만 일단 마음이 움직이면 오래도록 머무를 수 알려주어야 한다. 성충동이 느껴졌을 때, 자신의 성욕이 더 강한지 관계의 책임감이 더 강한지를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볼 것을 격려하

길 바란다. 남자의 성애는 불과 같아 불을 때고 싶어 불을 당기는 순간, 마음이 타올라 성관계로 발전되기 쉽지만 성관계 후 남자의 마음은 불과 같아 성욕이 즉시 꺼져 버린다. 하지만 여자의 마음은 물과 같아 성욕이 꺼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남친의 꺼져버린 마음을 보며 깊게 상처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 해 주어야 한다. 사춘기이기에 그 성 관계가 '첫 성 관계' 이기가 쉽고, 이렇게 첫 단추가 잘못 맞추어지면 여친의 성생활에 지대한 피해가 옴을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 피해가 지울 수 없는 '정신적인 성 학대' 가 될 수도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책임을 지지 않은 성관계는 자신에게도 피해가 옴을 알려주어야 한다. 무의식적으로 자리잡은 죄의식을 감추기 위해 더욱 '누리는 성' 에 빠져들 수 있음을 말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테스토스테론의 남성 호르몬이 쉽게 흥분하지만 쉽게 없어질 수도 있으니, '성충동' 을 운동, 취미생활, 건전한 이성 그룹, 교외 활동, 지나치지 않은 비디오 게임, 여행, 가족간의 대화, 교회를 통한 청소년 그룹으로 전환하여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주길 바란다. 사춘기의 남아가 '수음' 으로 '성욕' 을 배설 할 수도 있다. 예를들 지겨, 아이의 방을 들어갈 때 노크하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몽정이 부끄러워, 자신의 속옷을 감추고 있다면 이 과정은 성인이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알려주길 바란다. 같은 동성인 아버지가 맞는 것이 좋다. 지나친 학업관리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과대하게 늘면, 분출되지 못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과 합쳐져서 과격한 공격성(Aggression)으로 변화할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

미국 럿거스대 인류학자 헬렌 피셔 교수의 남녀 간의 사랑을 3단계를 이야기 한다. 이 이론은 남녀 간의 사랑을 '호르몬' 과 '신경 전달물질' 의 작용으로 설명하여준다. 피셔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남녀 간의 사랑은 '갈망' 으로 시작해 '홀림' 을 거쳐 '애착' 으로 넘어간다. 각 단계에서 남녀는 서로 다른 화학 물질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사랑의 첫 단계인 '갈망' 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다. 이들은 뇌와 생식기에서 분비되며 생식기능과 성적 욕구에 관여한다. 두 번째 단계인 '홀림' 은 머릿속이 온통 연인 생각으로 가득 찬 시기다. 이때는 남녀 공히 페닐에틸아민, 엔돌핀,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이 왕성하게 분비된다. 세 번째 단계인 '애착' 은 불처럼 뜨겁지는 않으나 더욱 끈끈한 관계를 맺는 시기다. 오래된 연인이나 결혼한 부부가 이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 주로 관여한다. 코넬 대학의 신시아 하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도파민이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걱정적인 사랑의 유효기간은 길어야 30개월이다. 그 기간에 성숙한 관계를 쌓지 못한 연인들은 헤어지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테스토스테론 과 도파민의 불같은 에로스적인 사랑, 꿈같은 '성애' 를 일으키지만,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옥시토신같이 변함없이 책임을 갖는 사랑을 하기 위해선 감정과 직관을 관리하는 '변연계' 와 논리와 이성과 언어를 관장하는 '신피질' 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주길 바란다. 신피질의 전전두엽이 완전히 성숙되는 나이가 24살임을 더불어 알려 주길 바란다. 자신뿐만이 아닌 상대방을 존중하고 책임지고 아껴주고 이해하려는 성숙한 사랑을 아이에게 가르쳐줄 수 있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한 순간이 아닌 영원히 '누리는 성' 을 선물로 갖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부모님 서로가 성숙한 사랑을 보여주려 노력한다면 부모님들도 '누리는 성'을 덩으로 받게 될 것이다.



**행복한 미소가 그리우십니까?
1st 초이스가 고객님의 미소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Special!

치아교정 무론상담
(2013-11-14까지)

모든 진료를 편리하게 한곳에서!

•치아교정	•소아치과
•사랑니발치	•치아미백
•임플란트수술	•악관절(TMJ)
•보철/비니어	•수면진정마취
•신경치료	•3DX-Ray(CT 스캔)

Dr. Jeong Sook Lee (박정숙 선생)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DDS/Ph.D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DMD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Practice limited to prosthodontics

Dr. Michael Kong (강철훈 선생) 

University of Pennsylvania, DDS
Harvard Dental Resident
Practice limited to endodontics

Dr. Samuel Lee (이승우 선생) 

UCLA School of Dentistry, DDS
Harvard Dental Resident
Practice limited to perio, implant, & ortho



IMPLANT • BRACES • COSMETIC
DENTAL
781.273.2233
www.1cdental.com
1st.CHOICE DENTAL

한국인 직원을 찾아주세요

H마트에서
5분거리

11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DENTAL IMPLANT CENTER
FIRST CHOICE DENTAL GROUP
11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앤티비(enjoy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티보 개학기념 **학생할인**

폭탄세일!

\$14.99

(2년 약정시)

학생 할인

2014년 9월5일-10월4일까지
보스톤 코리아 티보가
학생 여러분께 BIG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정규가격 : \$34.99

1.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학생 할인
\$14.99(2년 약정시)

2.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시니어 할인(65세이상)
\$24.99(2년 약정시)

3. 티보 런칭기념 특별할인 연장!

10월 30일까지
\$39.99 상품 개통으로부터 3개월간
월 \$9.99으로 가격인하
(2년 약정시, 3개월 후 \$34.99로 과금)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617.650.6656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서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50) 성공하는 은퇴준비

한국에서 이민 오자마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쁜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란 세월도 일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다 문득 나의 노후대책을 생각하면 앞길이 막막합니다. 아이들 공부시키며 먹고사느라 준비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안락한 은퇴생활을 위해서 해야 하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일찍 시작

철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22살 때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달 \$500 불씩 8% 이자를 받으며 10년 동안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친구를 만나는 바람에 투자를 중단합니다. 영희는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모든 과정을 마치고 32살에 전문의가 되어 매달 \$500 불씩 32년을 투자합니다. 철수와 영희가 64세 때 철수는 단 10년만 투자해도 \$117만 불이 되지만 오랫동안 투자한 영희의 투자 금액은 \$89만 불이 됩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의 기본은 좋은 종목이 아니라 시간(time)임을 알아야 합니다.

2. 401(k) 투자는 필수

직장 다니는 사람이 401(k)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면 이 글 읽는 것을 바로 중단하고 401(k)을 바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401(k) 투자는 세금유예가 되는 투자이므로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해야 회사에서 제공하는 매칭(matching)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공돈'입니다.

3. 주식시장을 이긴다는 생각은 금물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이야말로 '주식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좋은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과 비교해서 저조합니다. 주식 선택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일반 투자자가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

니다.
4. 과거 수익률은 지나간 과거일 뿐

일반 투자자는 뮤추얼 펀드나 그 외 다른 투자종목을 선택할 때 과거 수익률에 의해서 선별합니다. 그러나 과거 수익률과 미래의 수익률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과거에 저조했던 투자종목이 미래에 더 유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저축은 자동으로

꾸준히 저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고의 방법은 자동으로 미리 돈이 빠져나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적은 금액일지라도 꾸준히 하면 큰 목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6. 주식에 많이 투자

젊은 사람은 당연히 주식에 투자되는 부분이 많아야 합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주식에 투자해야 합니다. 물론 많은 투자 위험성이 있으면 안 되므로 주식, 채권, 현금을 이용한 포

트폴리오를 형성해야 합니다. 생활비는 은퇴자산의 작은 일부입니다. 은퇴자금 일부는 주식에 투자되어야 물가상승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신용카드 조심

신용카드는 매달 100% 갚아야 합니다. 카드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신용카드의 이자율이 30%까지 부과됩니다. 이렇게 비싼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것은 길거리에 나의 돈을 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8. 세금

투자종목을 자주 변경하면 트레이드 경비와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목을 사고팔기 전 부과되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9. 적은 비용은 필수

금융산업에서는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 푼이라도 남에게 주지 않으면 그만큼 나의 호주머니에 있게 됩니다. 오히려 비용이 비싼 금융상품이 대

부분 '비지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뉴어티(annuity), 부동산(non-trade REIT), 생명보험(equity index life insurance) 등입니다.

10. 간단(simple)한 것이 최고

투자는 간단해야 합니다. 개별적인 주식, 부동산,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뮤추얼 펀드는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한 인덱스 펀드나 ETF를 이용하여 분산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양도소득세

미국의 양도소득세

이번주는 양도소득(Capital gains)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Capital gain이란?

양도소득(Capital gains)하면 떠오르는 것이 부동산이나 주식입니다. 그런데 capital gain이란 자본재산(Capital assets)을 처분할 때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capital assets에는 부동산(건물 등), 동산(자동차 등), 투자증권(주식 등), 귀금속, 수집품(동전, 미술품 등), 사업용 자산 등 거의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즉,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장·단기 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

이러한 capital gain은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세법은 capital gain을 일반 소득과 다르게 과세합니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먼저, 양도소득을 1년 이상 보유한 '장기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s)' 과 1년 미만 보유한 '단기양도소득(Short-term Capital Gains)' 으로 구분하고,

다음으로 단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소득(예를 들면,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10% ~ 39.6%의 세율을, 장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15%(고소득자의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수집품(동전 등)과 특정 소기업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28%로 과세되며, 미국 세법 1250조의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중 일부는 25%가 적용됩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Capital Assets의 양도로 인하여 종종 손실(양도가액이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면 먼저 그 양도손실(capital losses)을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capital gain)과 상계합니다. 그러하고도 손실이 나면 이를 순양도손실(Net Capital Losses)이라하는데, 이는 그 해의 다른 일반 소득(급여나 사업소득 등)에서 \$3,000(또는 \$1,500)한도내에서 공제해 줍니다. 만약 당해연도에 다 공제하지 못한 순양도손실이 있다면 그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어 이월된 해의 양도소득에서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지 못한 순양도손실은 다시 \$3,000(또는 \$1,500)을 한도로 일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자택(Main Home)에 대한 혜택

일정요건을 갖춘 주거용 자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500,000(또는 \$250,000)까지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 Main Home이란 지난 5년의 기간 동안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주거용 자택으로 사용한 주택을 말합니

다. 2년 이상 거주한다함은 계속하여 2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5년 동안의 거주일수를 합한 일 수가 2년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근무지의 변경이나 건강상의 문제 및 기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을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동종자산으로의 교환(like-kind exchanges)

미국세법 1031조에 의하면, 일정요건을 갖춘 동종자산끼리 교환(exchange)할 경우 기존 자산의 양도소득을 새로운 자산의 처분시까지 이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이 영원히 면세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납부기한을 연기시켜 준다는 의미입니다.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①교환자산이 투자나 사업목적의 자산이어야 하며(사적으로 사용된 자산은 안됨), ② 반드시 동종자산(like-kind) 간의 교환이어야 합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일반적으로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의 양도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이 ①미국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인 경우와 ②미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지(tax home)가 외국인 비거주자가 주식(Securities)이나 동산(personal property)을 양도한 경우, 그 소득은 외국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양도 소득이 미국내 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미국내 거주일수가 과세기간 중 183일 미만이면 그 양도소득은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미국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에는 미국에서 과세됩니다.

위의 183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생이나 연구원 등(exempt individual)은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들은 미국에 실질적으로 183일 이상 거주했다더라도 유예기간(5년 또는 2년) 동안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한 과세기간내에 실질적으로 183일 이상 미국에 살았다면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거주자의 미국내 부동산(real property)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부동산 양도소득은 미국의 시민권자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며, 'The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FIRPTA)' 에 의해 양수자가 그대가 지급시 그 가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어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품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춤탈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MAKI MAKI

브라이트 대형 스시 뷔페 | Japanese Sushi & Seafood Buffet



스시 외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5년 이상 경력의 샐러드 전문 요리사 (Cold dish chef)를 구합니다

마키마키에서는 편안하고 기억에 남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뷔페스타일(all-you-can-eat)의 식사뿐만 아니라, 한정된 기간 동안 주문식 스시

(made-to-order) 스타일의 식사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주방장의 열정과 엄선된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다양한 일식 및 중식 요리들을 경험해 보십시오.

Lunch 10%

성인 3명 이하, 한 테이블에 쿠폰 한 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명 이상은 정상가격)
 다른 할인이나 쿠폰 중복 사용 불가 / 공유일 사용 불가
 유효기간 : 2014년 10월 16일까지

Dinner 15%

성인 3명 이하, 한 테이블에 쿠폰 한 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명 이상은 정상가격)
 다른 할인이나 쿠폰 중복 사용 불가 / 공유일 사용 불가
 유효기간 : 2014년 10월 16일까지

Cannot combine with other coupon and other promotions
 Not valid on weekend and holiday



매일 행운 추첨 무료 저녁 식사

매일 처음 10번째까지 고객에게
 무료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저녁식사 시간에 레스토랑에 오셔서, 안내데스크에 무료저녁식사 추첨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10번째까지의 고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해서 매일 두분께 당첨의 기쁨을 드립니다. (12세 이상의 참가자에 한함)

행운을 빕니다!

Lunch

11:00am ~ 2:30pm
 Mon~Thur \$17.75
 Fri~Sun, Holiday \$21.75

Dinner

Mon~Thur: 5:00pm~9:30pm \$28.95
 Fri~Sat : 5:00pm~10:30pm \$30.95
 Sun, Holiday: 4:00pm~9:30pm \$30.95

617.783.1888

304 Western Ave. Brighton, MA 02134
Makimakiboston.com

정준기 원장 교육 칼럼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 3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아카데미 프로그램

미국 대학들의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학교의 성향과 학제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학교가 원하는 코스를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해야 한다. 하버드의 경우는 학부를 하버드 칼리지(Harvard College)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최종 전공은 2학년 2학기 말까지 선택하게 하고 1,2학년 때는 다양한 아카데미 분야를 경험하여 학생 자신이 정말 원하는 전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 즉 교양학부 중심 교육(Liberal Arts Education)으로 모든 학생들이 전공과는 무관하게 1,2학년 동안 각각 다른 8개 분야에서 적어도 한과목씩을 수강해야 하는 교양 필수 과목들(General Education Requirements)을 교육시키기 때문이다. 8개의 일반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다.

- 미적이고 분석적인 이해력 (Aesthetic and Interpretive Understanding): 예술과 문학 분야
- 문화와 신앙 (Culture and Belief): 종교학과 문화 분야
- 경험적이고 수학적 추리력 (Empirical and Mathematical Reasoning): 수학과 추리력 분야
- 윤리적 추론 (Ethical Reasoning): 도덕과 철학 분야
- 생명 시스템 과학 (Science of Living

Systems): 생물학, 화학등의 분야

- 물리적 우주 과학 (Science of Physical Universe): 천문학과 물리학 분야
- 세계의 사회들 (Societies of the World): 사회학 분야
- 세계 속의 미국 (The United States in the World): 미국사 분야의 일반 교양 필수 과목들이다. 이것 이외에 작문, 외국어들의 과목을 이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졸업을 위해서는 전공, 일반교육, 선택분야 등에서 총 32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버드는 교수들이 학점을 잘 주기 때문에 입학만 하면 졸업이 타학교에 비해 쉽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다. 하버드에서 B학점 이하를 받는 것은 어렵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들을 하버드 교육과정을 어려움 없이 소화해 낼 수 있는 학생들만 선발해서이다. 즉 공부가 쉽다기보다는 똑똑한 학생들이 많아 학점 받기가 어렵지 않다고 한 것이 학점 받기 쉬운 학교로 인식된 것이다. 현재 3학년 재학생의 말을 인용해보자.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일단 특정분야 천재성이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야 해요. 한 가지 좋은 점은 노벨상을 받은 교수가 직접 강의도 하고 천재성이 있는 친구들과 그룹 스터디를 하면서 단시간에 큰 도움을 받기도 해요. 교수님의 강의와

속제의 양은 매일 일정한 시간 꾸준히 준비해야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버드 공부 쉬워서 학점을 잘 받는게 아니라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학점받기가 쉬운 학교로 일반인들에게 잘못 알려진 것을 알 수 있다.

하버드는 일년 2학기제로 학생들이 4-6과목까지 매학기별 수강 할 수 있고 전공을 두개 하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턴쉽과 리서치를 2학년때부터 시작한다. 리서치는 학생들이 원하면 여러 분야에서 쉽게 기회를 잡을 수 있어 가능하면 전공을 빨리 정하여 자신이 집중하는 분야에서 리서치나 인턴쉽을 하는 것이 좋다. 학부생들을 위한 리서치 사무실 (Office of Undergraduate Research Initiatives)을 2010년 오픈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찾아주고 있다. 대표적인 리서치 프로그램으로는 BLISS (Behavioral Laboratory in the Social Sciences), PRIMO (Program for Research in Markets and Organizations), PRISE (Program for Research in Science and Engineering), SHARP (Summer Humanities and Arts Research Program) 등이 있다.

대부분의 리서치는 일정한 기금을 받은 프로젝트들로 학생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다. 리서치 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세가지로 HCRP (Harvard College Research Pro-

gram), FAP (Faculty Aid Program), MMUF (Mellon Mays Undergraduate Fellowship Program)으로 신청하면 각자의 자격 요건에 따른 기금을 받아 리서치를 할 수 있다.

하버드의 또다른 아카데미 특징 중에 하나는 심화학습 프로그램 (Enrichment Program)이다.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학점을 받는 전통적인 교수법도 있지만 학생이 자신의 전공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학교의 승인을 받게 되면 학교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실습과 리서치를 통해 얻은 다양한 이론과 연구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기 위한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도 쉽게 참여 할 수 있다. 물론 미국내 하버드와 협력관계에 있는 대학에서 수업과 리서치등의 경험을 할 수도 있고 학점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역시 학생들의 환경과 개인적인 재정 상태에 따른 보조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학생이 이미 재정 보조 수혜를 받고 있다면 이런 프로그램 참여시 당연히 재정보조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가 있다. 학생들이 재정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하버드 대학의 가장 큰 장점이다.

(다음 호에 계속)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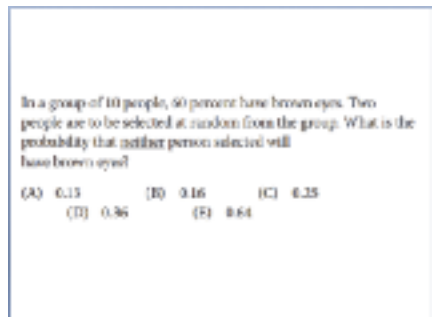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시험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SAT 혹은 ACT는 물론 SAT Subject Test, AP, 심지어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와 기말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학생뿐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는 학부모까지 스트레스다. 문제의 모든 답이 눈 앞에 보이면 좋겠지만, 복습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혹은 심리적 압박 때문인지 틀리는 문제는 당연히 생긴다. 몰라서 틀린다면 오히려 괜찮다. 공부해서 배우면 되니까. 문제는 알고 있으면서도 틀릴 때다. 알면서 틀리면 실수라고 하지만, 실수도 실력이고, 실수해서 틀렸다고 점수가 깎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틀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모르는 문제가 아닌데 틀려서 억울하고 아쉽다고 생각만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왜 아는 문제를 틀리는지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모르는 문제도 틀리고, 아는 문제도 틀

틀리는 이유, 그리고 오답노트

리고, 틀린 문제를 계속해서 또 틀리는지 알아야 한다. 알아야 고친다.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확인하는 것이 실수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틀린 문제들을 유형별로 나눠서 정리하면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기 쉬워진다.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알지 못해서 틀릴 수도 있고,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공식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단순한 계산 실수인 경우도 있고, 문제를 잘못 읽거나,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틀릴 수도 있다. 오답들을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표시해놓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오답의 이유를 찬찬히 세어 본다면 아마 놀랄 것이다. 단순히 실수로 치부하고 '다음에 안 틀리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문제 때문에 몇 점이나 까먹었는지 본다면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원인을 알고 나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쉬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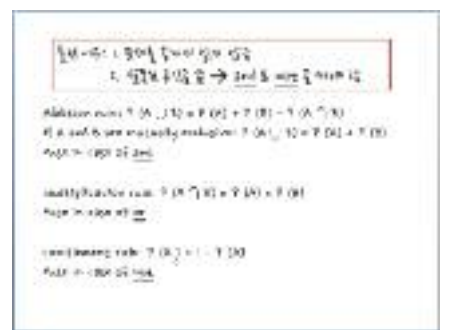
그 후엔 틀린 문제들만을 따로 모아 오답노

트 혹은 오답 카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기출 문제 혹은 문제집을 푸는데 얼마어마한 시간을 들이면서도, 한번 채점을 끝내면 자신이 푼 문제들을 다시 보는 경우가 거의 없다. 틀린 문제를 본다고 하더라도, 틀린 이유를 완전히 분석하기보다는 해답지를 보고 정답을 확인하는 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틀린 문제, 특히 '실수'한 문제들을 모아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 시간에 새로운 문제를 하나라도 더 풀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굳이 에너지를 쏟아가며 자신의 약점만 돌아볼 학생은 사실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를 많이 풀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학생과, 자신을 속이지 않고 단점을 고치는 학생 중에 누가 다음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까?

오답 노트라고 해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스스로에게 맞는 형식의 노트를 써가면서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방식을 시도해보게 되고, 문제 유형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게 된다. 예를 들어, 독해 문제에서는 출제자의 의도 혹은 작가의 관점을 메모해 놓는다거나,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핵심 개념, 필요 공식 등을 적어 놓는 것만으로도 다시 한번 복습이 가능해진다.

오답 노트가 아닌 오답 카드는 더 간단하다

. 앞면에는 단어, 뒷면에는 단어의 정의 혹은 동의어 등을 적어놓는 단어 카드를 만드는 방식과 동일하게 앞면에는 문제, 뒷면에는 틀린 이유와 문제 풀이를 위한 힌트 등을 적어놓으면 된다. 포인트는, 문제 풀이 자체는 적지 않는 것이다. 복습을 해야 되는 문제, 실수로 틀린 문제들을 골라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해답을 적어놓으면 오히려 복습에 방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약점을 하나 하나 공략하다 보면 점수가 점점 올라가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실수라고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왜 틀렸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이다.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C) 2014.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원장의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는 SD Academy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cademyonlin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www.pospay24.com



POWERED BY
WorldPayTM
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of

POSPay



 Leaf

무료기계(2중계약 없음)

One Touch Solution POS
24시간 이내 입금

모바일페이 (iPhone, Android)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음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소유자 은퇴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100,000

보스톤 남쪽 아이스크림, 연매상 \$400,000 프랜차이즈

보스톤 고급 몰 커스텀주얼리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 가격

동양식당 히바치/스시 우스터 클락유니버시티, 저녁 한끼 Full 리커 면허증
연매상 \$250,000 매매가격 \$129,000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 급매매, 연매상 \$120,000 매매가격 \$69,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14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다운타운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금액 협상가능

보스톤 남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10,000 매매가격 \$60,000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00,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2,000 매매가격 \$35,000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보스톤 대학가 근처,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180,000+\$100,000(홀세일),
60lbs 세탁기(퓍아님)

보스톤 남쪽 피자/델리/한식 성장가능성 많음. 연매상 \$330,000

메인주 포틀랜드지역 컨비니언스, 연매상 \$600,000 E-2 비자 가능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보스톤 북쪽 주유소+컨비니언스 (2 비즈니스), 연매상 \$1.4M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홀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140,000 Wash & Fold 많음 소유자 은퇴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 최고 에세이 편집자
-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SAT I,II 주말 Intensive Class

SAT I Class

1. 대상: 시험을 앞둔 10,11,12학년

2. 특징:

- 실전문제풀이 중심으로 다가오는 시험대비 및 최종점검
- 종일 프로그램(9:00-5:00)
- 4주 단위로 상시 등록가능
- 실력있는 강사(영문학 박사로 본원에서 4년 강의중)

3. 수업일정

9:00- 9:30 단어테스트
9:30-11:30 class(reading/writing)
11:30-12:30 점심식사
12:30- 5:00 Full set 실전문제풀이

SAT II Math II C Class

- 다년간 경험의 공학박사 강사
-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강의

2014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 프로그램 일정: 11.22(토)~30(일)

(11.27일 추수감사절 당일은 휴강)

2. 프로그램 내용

- SAT I/SSAT/TOEFL Class(3명이상)
- SAT 2 Subject Test Prep (Math/Science/History/Language)
- All subjects for private tutoring
- National Contest Prep(AMC 10&12)

3. 프로그램 참가자의 숙식 및 교통편 알선

*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 www.bostonedu.org

아카데믹 프로그램

1. SAT 1,2 /AP/SSAT/TOEFL 및 전 학과목 개인수업 가능

- 학생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강의
-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 Skype수업 가능

2. Reading/Writing class

- 현직 영어교사 강의
- 다양한 장르의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
- 독서후 토론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향상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3

tel. 339.234.5255~7 / fax. 339. 234. 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